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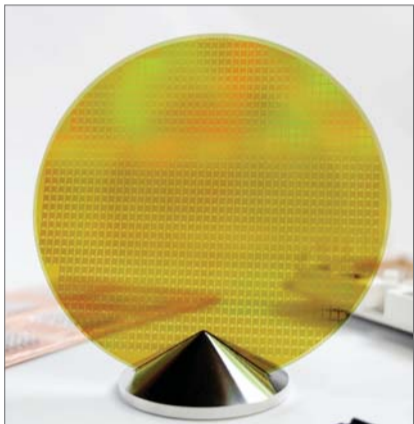
↓ 코스피 3264.96 (-13.72)	↑ 코스닥 1003.72 (+5.23)
↑ 금리 (미국 3년) 1.327 (+0.041)	↑ 환율 (원/달러) 1130.40 (+13.20(17일))



[뉴스]  
7월 50대 백신접종  
18~49세는  
8월부터 선착순  
02

#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고조 성장률 전망 ‘올리고 또 올리고’

IC인사이드 ‘반도체 성장률’  
12%→19%→24%로 추가 상승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 본격화  
D램 매출 전년비 41% 증가 기대



인피니언은 전장용 반도체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사진은 전장 반도체에 쓰이는 SIC 웨이퍼 /인피니언

반도체 시장 ‘슈퍼사이클’ 전망이 또 다시 이어졌다.

17일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4% 성장할 예정이다.

앞서 IC인사이드는 성장률을 12%에서 19%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5% 포인트를 추가로 높이면서 당초보다 성장 전망을 2배로 봤다.

IC인사이드 역시 D램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단위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1%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D램 공급 부족 상황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도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반도체 성장도 25%로 D램에 이은 2번째 큰 성장이 기대된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기능을 하며, 센서가 대표적이다. 전장 반도체에도 여러 곳에 쓰인다.

로직 반도체 시장도 전년보다 24%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로직 반도체는 일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리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등 열풍으로 IT 기기 보급이 빨라지는 반면 미중무역분쟁과 기술 격차 등으로 공급이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장 반도체 부문 성장이 뚜렷했다. 전장용 로직 반도체는 39%, 전장용 아날로그 반도체는 31%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낸드플래시 매출액도 22%

늘어난다고 IC인사이드는 전망했다. 하락하던 가격도 2분기부터는 안정화되고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과 낸드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분야다.

반도체 시장 성장을 예상한 곳은 IC인사이드 뿐 아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도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액을 전년 대비 197.7%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3월 10.9%에서 거의 2배 가량을 상향 조정한 것.

트렌드포스도 5월달까지 메모리 가격이 보합세를 이어갔지만, 3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3~8% 상승하는 등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하반기부터는 가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매출액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하반기 업계가 차세대 메모리를 출시할 예정으로, 수출 경쟁도 주요 볼거리”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중 유인우주선 선저우 12호 발사

17일(현지시간) 중국 간쑤성 주취안의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2호가 창정(Long March) 2F Y12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중국은 우주 프로그램 착수 5년 만에 첫 유인 우주 임무를 시작했다.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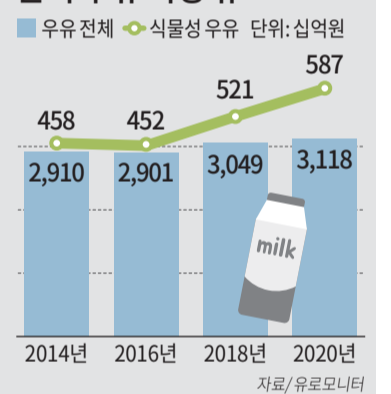
## m-커버스토리

# 우유도 식물성이 대세 대체우유 시장 급성장

### 국민 식품 ‘우유’

업계, 프리미엄 우유 경쟁 격화  
건강 중시, 글로벌 비건 열풍에  
식물성·단백질 우유 개발 속도

### 한국 우유 시장 규모



국내 우유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우유업계 빅3’ 간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우유 또는 대체 우유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강화 및 신제품 출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7일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전체 우유시장 규모(온·오프라인 판매액 기준. 학교 급식, 병원, 회사, 군대와 같은 B2B와 면세, C2C 시장 제외)는 지난 2010년 약 2조6030억원에서 지난해인 2020년 3조1175억원으로 늘었다.

10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우유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지난 2011년 2조7229억원, 2012년 2조9217억원으로 조금씩 오르더니 2018년에는 3조원대를 돌파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확장성이 유지됐다.

우유 분야 시장 잠재력이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과 같은 유업계 대표주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프리미엄 우유 또는 대체 우유 개발에 나섰다. 최근 경쟁력 대결 심화 분위기

에 더해 건강 관리, 비건 트렌드가 겹쳐지면서 우유 품질 향상 또는 식물성·단백질 우유 등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측은 지난달 서울우유 HACCP(해썹) 인증 목장에서 엄선한 세균수 1A등급, 체세포수 1등급을 모두 충족한 최고 등급 우유 ‘나100% 그린라벨’을 프리미엄 우유 격으로 출시했다.

또 매일유업은 성인영양식 브랜드를 표방하며 셀렉스를 론칭한 뒤 ‘코어프로틴 프로’를 대표로 총 14종의 단백질 우유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내놨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기존 베스트 셀러 제품에 해당하는 ‘맛있는 우유’, ‘아인슈타인’ 등의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남양유업 중앙연구소는 올 3월 식품 기업체 중 유일하게 ‘국가식품성분 데이터센터’에 선정됐으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 품질 제품을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원메미 기자 silverbeauty@

# 쿠광, 국내투자 확대... 김범석은 해외 전념

부산에 17만㎡ 물류센터 건립 등  
올해 국내 신규 투자 1조원 넘어



(왼쪽부터) 강한승 쿠광(주) 신입 이사회 의장, 전준희 신입이사, 유인종 신입이사.

쿠광이 글로벌 경영과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뉴욕 증시 상장과 해외 진출을 계기로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며, 국내에서는 물류센터를 확대해 촘촘한 배송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쿠광(주)는 지난 11일 주주총회를 열고 전준희 개발총괄 부사장과 유인종 안전관리부사장을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 의장직은 강한승 대표가 맡아 기존의 혁신 서비스는 물론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등기이사에서 내려왔다.

신규 선임된 전 부사장은 쿠광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유 부사장은 쿠광케어로 대표되는 근

로자 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준희 부사장은 구글, 우버 등 세계적인 IT 기업을 거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현재 로켓배송 개발 총괄을 맡고 있다. 유인종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안전관리 분야 출신으로는 처음 임원에 오른 산업안전 전문가로, 쿠광의 안전관리 및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기존 강한승, 박대준 각자대표 체제에 새로운 이사회가 합류함에 따라 쿠광 이사회의 부분별 전문성이 더욱 강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 진출을 진두지휘한 김범석 의장은 뉴욕 상장법인인 쿠광의 CEO 및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글로벌 확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강한승 신입 쿠광 이사회의 의장은 “쿠광은 지난 10년 동안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기존에 없던 혁신적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창출했고, 배송인력 직고용 등으로 택배물류업계 근로 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쿠광이 국내 물류센터 신규 투자로 발표한 누적 투자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투자금액은 2200억원이며, 17만㎡ 규모의 물류센터가 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서울 코로나 201명 신규 확진... 이틀 연속 200명대  
▲ 대선 출마 정세균,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 대통령 될 것” /사진 뉴스1

▲ 이재명-김경수 비공개 오찬... ‘친문 지지’ 이끌어냈나?  
▲ ‘중국산 김치 아직 불안한데’... 5월 수입 반등



▲ 대선 출마 하태경 “청와대·국회 포함 수도 세종시로” 공약 /사진 뉴스1  
▲ 사망 여성사 피해사실 노출한 공군 부대원들 입수수색

# 내달 50대 백신접종 시작... 18~49세 8월부터 선착순 접종

##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접종못한 60~74세 최우선 대상 고3·교직원 19일부터 '화이자'

50대 26일부터 접종... 종류 미정 40대 이하, 백신별 접종일시 선택

40·50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시작된다. 50대가 우선 접종자로 분류돼 7월 접종을 시작하고, 18~49세에 대한 접종은 8월부터 나이에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50대 미만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백신별 접종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7~9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공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60~74세 사전

예약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7월 최우선 접종 대상이 된다. 20만명까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접종하지 못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7만여명도 이달 예약을 받아 다음 달 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접종 동의자에 한해 7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접종도 7월 19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된다. 6월에서 한달 연기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된다.

60세 미만 일반 국민 가운데는 50대가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 50대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거쳐 7월 26일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55~59세부터 시작해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는다. 50대에 배정될 백신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8~49세 등 4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연령 구분 없이 오는 8월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한다. 이 연령층은 백신 종류가 정해진 다른 연령대와 달리 개인이 백신별 접종 일시와 기관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하다. 3분기엔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3분기 백신 접종은 2차 접종자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76만명은 7월 2차 접종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한편, 이날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400만명을 넘어서며 상반기 1차 접종 최대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 전 국민의 27% 규모다. 백신 권장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전 인구의 7.3%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구분	접종 대상	사전예약	접종	기관
1 50대 등 우선접종 대상 17만명	6월 60~74세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6월 사회필수인력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10만명 7만	6월28일~30일 7월5일~17일	예방접종센터
2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190만명	고교 3학년 및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돌봄인력 기타 대입수험생	64만 110만 16만	7월19일~ 7월 중 8월 초 8월 중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3 50대 장년층 857만명	55~59세 50~54세	407.9만 449.1만	7월12일~ 7월19일~ 7월26일~ 8월 초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4 40대 이하 (18~49세)	접종 3주 전 백신 도입물량 시기 확정 가용물량 확정 사전예약 공지	접종 2~3주 전 사전예약 실시 대상 18~49세 기간 1주일 내외 (온라인, 콜센터)	접종 1주 전 백신배출	접종
5 지자체 자율접종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 고려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접종	7월말 이후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6 사업장 자체접종	24시간 가동 주요 생산공장 자체접종 통해 종사자 접종 편의	8월 중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우선접종자(50대 등) 접종 완료되는 8월부터 시행

※8월 이후 계획은 백신 수급상황, 국내외 연구, 해외사례 등 종합해 검토 자료: 질병관리청 /뉴스시스 그래픽

# “美 기준금리 동결... 우리 금융시장 일부 영향”

## 이역원 기재부 1차관

“국내의 금융시장 변동성 다소 확대 유사시 우리정부 대응여력은 충분”

이역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돼 우리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

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했다.

다만, 연준은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 차관은 “향후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황과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그는 “유사시 우리 정부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테이퍼링은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의미해 백신 접종 후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차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급작스러운 테이퍼링과는 달리 세계 경제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그간 충분히 예측되고 적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우리나라 외화보유액

은 올해 5월 기준 4564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환매조건부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시장 안정 수단을 확충했을뿐 아니라 한미 통화스와프도 연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0일 수출이 4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실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인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18bp)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실제 통화정책 기조가 전



이역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급 영향에 대한 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 홍남기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 세제 완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연내 아파트 물량 46만 가구로 확대”

정부가 2·4대책 관련 공공매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와 증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을 전국 46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4대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 없이 취득세와 증부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車반도체 품귀에... 車업계 “직접 만들자” 국산화 시동

반도체 부족에 섰다운만 수차례 국내車, 생산량 조절하고 있지만 수급대란 장기화에 업계 ‘비상’

현대모비스, 반도체 내제화 추진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개발 검토

올해 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귀한 몫이 된 부품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 혁명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올해 초 직격탄을 맞은 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결국 위기를 맞았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물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초기 예상과 달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자동차 제조를 중단한다. 이번 섰다운은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휴업으로 이번이 네번째다. 아산공장 생산라인은 지난 4월 12~13일과 19~20일, 5월 24~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일간 멈췄다. 현대차는 앞서 5월 17~18일에는 투싼과 넥쏘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을 섰다운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기아는 역시 소하리 2공장이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반도체 부족 난에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해외 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 장기화로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14~18일(현지시간) 5일 동안 1차 섰다운에 들어간다. 앨라배마 공장은 21~25일 5일간 생산을 재개한 뒤,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2차 섰다운은 연례 공장 정기점검을 위한 것이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기아 조지아 공장은 14일부터 23일(근무일 기준 8일)까지 반도체 부족으로 기존 3교대 근무를 2교대로 전환 운영한다. 앞서 조지아 공장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반도체 물량 부족으

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이 공장은 지난 4월에도 이틀간 휴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부평·창원 공

의 차량 생산량을 절반 가량 감소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생산 기지 정상화에 따라 부평·창원 공장 모두 정상 가동중이다. 특히 한국 지엠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등 주력 수출 제품에 대한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도 반도체 소자 부품구급 차질로 지난 4월 8~16일 공장 가동을 멈췄다. 또 19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르노그룹이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주력 모델인 XM3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등과 관련해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의 차량 생산에 부담이 작용할 것

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SMIC와 대만의 TSMC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도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차량 생산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전장 부품 사업을 맡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31일 개최한 중장기 성장전략 콘퍼런스에서 반도체 내제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담당 실무진이 DB하이텍·키파온드리와 접촉해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7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쿠팡과 부산광역시가 부산물류센터 구축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쿠팡

## “부산 물류센터, 해외진출 전진기지 기대”

>> 1번 ‘쿠팡, 국내투자 확대’서 계속

3000개 이상 직접고용 효과 전망

이번 부산 물류센터 투자 협약은 3월 전라북도, 4월 경상남도, 5월 충청북도에 이어 올들어 네번째로 발표된 쿠팡의 국내 투자 계획이다.

그간 발표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200억원 이상이며 물류센터 건물의 연면적을 합치면 70만㎡를 넘어선다. 7000㎡ 넓이 축구장 100개와 맞먹는 규모다. 쿠팡은 부산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3000개 이상의 직접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은 2024년 준공 예정인 부산 물류센터를 상품 관리, 배송 동선 최적화

등 유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T)을 융복합한 혁신 기술들을 망라한 첨단물류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당 물류센터는 수출입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시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부산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신항만과 인접해 입지적인 강점이 뛰어나 쿠팡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산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가슴 뛰는 순간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니까

인생에 든든한 보험이 필요한 순간마다 늘 당신 곁을 지켜온 한화생명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의 활기찬 인생이 이어지도록 한화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까지 부담없이  
**LIFEPLUS 어른이보험(무)**

치아관리도 놓칠 수 없으니까  
**한화생명 스마일 치아보험(갱신형)(무)**

중대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GI보험(무)**

가입 문턱은 낮추고 가입 한도는 확대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노후안심 치매보험(무)**

**FINISH**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치매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해보험금)에 가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충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8만 지급합니다. 차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8만 지급합니다. 차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의회제 2020-03030호 (2020.10.27)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0-10-22

# 비건·MZ·영아 모두 ‘아이럽 우유’ 맛·취향 더한 건강한 우윳빛 대전

## 우유업계 ‘빅3’ 혁신 가속

프리미엄 우유, 식물성 우유의 경우처럼 우유 업체가 소비자의 선호도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우유를 내놓는지에 따라 업계 지형도도 변화가 있어왔다.

17일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국내 우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었다. 지난 2010년 31.8%로 최근 10년 중 최고 점유율을 찍은 서울우유는 그 이후에도 20%대 후반 점유율을 꾸준히 기록한 뒤 지금은 약 2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우유의 뒤를 이은 2위 업체는 매일우유다. 매일우유는 2010년 13.7%의 점유율로 시작해 엄청난 뒤처림 수치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인 2020년 시장 점유율을 약 18%까지 끌어올렸다. 3위 남양우유는 2010년 13.4%의 점유율을 찍은 뒤 점점 하락세를 말더니 지난해에는 10.2%라는 최저점을 찍었다.



서울우유의 인기제품인 ‘민트초코라떼’ 300ml 제품 이미지.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우유 단백질 우유 브랜드인 셀렉스 전체 제품 이미지. /매일우유



남양우유의 특수분유 임페리얼드림XO 알레기. /남양우유



## 흑임자·귀리 등 비건트렌드 공략 민트초코 등 신제품 라인업 확대

### ◆서울우유, 식물성 우유·MZ 세대 저격 우유로 1위 고수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최근 화두인 ‘비건’ 트렌드를 제대로 공략, 과감하게 식물성 우유들을 출시하며 시장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유 시장 내에서 식물성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졌다. 2010년 3120억원 가량이던 식물성 우유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무려 5870억원까지 증가했다.

서울우유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최근 식물성에 해당하는 귀리 우유와 흑임자 우유를 출시했다. 흑임자우유에는 흑임자뿐 아니라 서리태, 흑미까지 함유해 안토시아닌 등이 든 건강 블랙 푸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유 함량은 50%이며 단맛은 국산 아카시아 꿀을 사용했다.

또 두번째 곡물우유 라인업 제품으로 ‘귀리우유’를 선보이며 병아리콩, 퀴노아, 울무 등 6가지 곡물과 3가지 견과를 담아냈다. 평소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만성 변비가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선한 국산 원유를 유당 분해해 만들었으며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까지 넣었다.

이밖에 서울우유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MZ 세대를 타깃해 우유 제품들도 여러 가지 출시했다.

가공유인 민트초코라떼, 살롱밀크티, 너티초코 등이 그 예이다. 독특하고 새로운 제품을 찾는 2030 세대 젊은층의 소비 트렌드에 주목하여 제품 라인업 확대한 결과, 가공유에 해당하는 이 우유들의 판매량은 올해 현재까지 전년 대비 약 106% 증가했다.

### ◆매일우유, 단백질 틈새 시장 공략 만년 2위 업체인 매일우유도 아몬드 우

유와 귀리 우유 등 식물성 우유를 내놨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매일우유의 맞춤형 건강 관리 브랜드 ‘셀렉스’다.

매일우유의 50년 과학적 영양설계 노하우와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의 근감소증 연구를 바탕으로 2018년 탄생한 셀렉스는 지금까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셀렉스는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맛있고 간편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 흡소핑 및 온라인 채널을 파고들었다. 흡소핑 판매에서 종종 물량이 매진되는 등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대표 제품인 ‘셀렉스 코어프로틴 프로’는 식약처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9년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최다 생산실적을 기록해 관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매일우유 측은 신생 브랜드 셀렉스 이외에 전북 고창의 청정자연 환경 상하공장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브랜드 ‘상하목장’ 등을 주력하고 있다.



## 셀렉스, 상하목장 등 브랜드 확대 간편 섭취 단백질우유 신시장 개척

상하공장이 위치한 고창 지역은 비옥한 무기질 황토, 적당한 강수량 및 해풍이 있는 구릉 지형 덕분에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가 유지돼 낙농업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매일우유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장과 공장, 유통 과정을 아우르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유기농 제품인 상하목장을 생산 중이다.

프리미엄 및 식물성 우유 카테고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단백질 우유라는 신시장을 개척한 매일우유는 지난해에 시장 최고 점유율을 쟁했다.

### ◆‘초심’으로 돌아간 남양우유, 영아시장에 주력

각종 오너리스크 및 불가리스 사태 등

로 부침을 겪은 남양우유는 떨어지는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현재 국내 분유 시장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간편식 성장에 따른 생활 트렌드 변화로 이유식 시장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Enjoy the Quality



## 오너리스크 등 연이은 악재에 점유율 ↓ 케어비 론칭... 배달 이유식 시장 진출

분유로 시작해 흥한 남양우유는 아기 우유 전문 기업으로서의 노하우를 담아, 지난해 3월에 배달 이유식 브랜드 ‘케어비’를 새롭게 론칭했다. 구독경제 열풍 및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장이 커가는 트렌드도 주목한 전략이다.

영양맞춤 배달 이유식 케어비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주문하면 문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로, 한국영양학회와 공동 개발한 레시피와 식단을 바탕으로 총 400개의 이유식 메뉴와 총 100개 영양반찬 메뉴를 자랑한다.

또한 케어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선택할 수 있는 영양 맞춤 식단을 제공한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아이에게 바른 성장과 고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케어비만의 서비스이다.

케어비는 지난 5월부터 축구선수 박주호 선수의 자녀인 ‘건후’, ‘진우’ 형제를 브랜드 모델로 선발하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론칭 이후 케어비 사이트 방문자 수는 20만 명에 달하며, 약 2만2000여 명의 고객이 케어비를 체험해봤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우리 보험사에만 있어요”...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각축전

3·6·9개월 등 일정 기간 독점판매  
올해 들어 배타적사용권 16개 획득  
특정 상품 선점·고객 유치 경쟁



한화생명 늘결에 간병보험.

일명 ‘보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두고 보험사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보험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은 총 16개에 달한다. 작년에 보험사들이 총 25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다.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신상품에 대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3·6·9개월 등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 ◆‘한화생명’ 배타적사용권 박차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은 기존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

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생명도 올 2분기 업계 최초로 재택간병·재활치료 담보 등 간병치료 특성을 고려한 신규 특약 4종을 개발했다. ‘한화생명 늘결에 간병보험’은 업계 최초로 가정간호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재택간병이 가능한 신규 급부를 포함했다. 국가 공적제도를 통해 재택간병 보장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보장해 사보험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최근 1년 동안 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눈길을 모은다.

지난 3월에는 ‘라이프플러스(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의 ‘건강활동 유형별 활동량 통합 측정 지표’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 해 9월에는 ‘LIFEPLUS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의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위험률’에 대해 6개월간 배

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 ◆손보업계, 배타적사용권 각축전

손보사의 경우 이날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10곳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 2분기 첫 손보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생활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보의 경우 ‘무배당 라이프플러스(LIFEPLUS) 더건강더실속건강보험’의 보험료 책정 할인율 14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한화손보는 건강한 고객이 겪는 불합리함을 개

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약 155만명의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이어 하나손보도 어린이, 청소년 생활위험을 집중 보장하는 ‘하나 슬기로 운자녀생활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던 아동학대피해(친족 제외)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와 치료비 보장 등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덕이다. 가해자 유형이나 행위가 아닌 아동의 피해 사실과 대책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액단기보험 시장에서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이처럼 이날 기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곳은 생보사 5곳, 손보사 11곳으로 총 16곳에 달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계열사 통합 플랫폼

# ‘신한플러스 모바일웹’ 오픈

‘따릉이+’ 서 쿠폰 구매 가능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  
포인트 거래 등 주요 서비스

신한금융그룹은 17일 원신한금융 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신한플러스 모바일웹’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자전거 따릉이의 모바일 쿠폰 구매 서비스인 ‘따릉이+(플러스)’도 신한플러스에 탑재했다.

기존 신한플러스의 서비스는 신한은행 출과 신한카드 페이판(PayFAN), 신한금융투자 아이(i) 알파, 신한생명의 스마트창구 등 그룹사 대표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오픈한 신한플러스 모바일웹

은 기존 신한플러스 1600만 회원들과 신규 고객들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편리하게 포인트 거래, 쿠폰 사용, 각종 이벤트 참여 등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신한플러스 모바일웹 론칭을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한플러스로 모.신.다’ 이벤트는 모바일웹을 통한 신한플러스 최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초록창에서 신한플러스를 찾아라’ 이벤트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신한플러스를 검색하고, 모바일웹에 로그인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BC카드 “마이태그로 쇼핑 할인 받으세요”

쿠팡·카카오톡서 할인 혜택

BC카드가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태그(#MyTag)’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오는 27일까지 주말에 쿠팡에서 BC카드 1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마이태그로 제공한다. BC카드의 결제금융플랫폼페이북 앱 내 마이태그를 통해 이벤트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일당 2021명)으로 혜택을 태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이벤트 기간 동안 고객 1인당 1회 제공한다.

더불어카카오톡 주문하기 이용 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이태그로 제공한다. 오는 30일까지페이북 앱에서 마이태그로 혜택을 선착순 20만명에게 태그한 뒤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톡 주문



BC카드가 마이태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BC카드

하기에서 BC카드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1회 제공한다.

한편, #마이태그는 BC카드가 자사 결제금융플랫폼페이북 앱을 통해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혜택 서비스다.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 성향에 맞게 추천되는 혜택을 고객이 태그한 뒤 해당 조건에 맞게 결제하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영석 기자 ysl@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절세권으로 이사(ISA)갑니다

**절세혜택과 주식거래는 기본**

거기에, **특판 RP 행운까지-**

**확 달라진 ISA를**

지금, **NH투자증권**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확 달라진 이사(ISA)**

-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의무보유기간: 3년
- 유형상품: 중개형 ISA 추가, 주식거래 추가
- 세제혜택: 수익의 200만원 한도 비과세 (조과 금액 9.9% 분리과세)
- 연금 전환 혜택: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 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일인형 ISA 가입 시 별도의 신탁(일인보수)연 0.1%~0.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 가입 시 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수수료 적용 기간 이후 수수료는 약 0.084%~0.403% (온라인 매매 기준, 거래금액별, 채널별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형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078호, NH투자증권 준법감사인 심사필 2021-1096(2021.06.08~2022.03.03)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LG엔솔, 세계 최대 규모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 공급

ESS 배터리 신제품 TR 1300 랙  
약 23만 가구 사용 가능한 용량  
외부환경 변화에도 안정적 운영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에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발전사인 Vistra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북동부의 모스랜딩 지역에 가동 중인 1.2GWh 규모의 전력망 ESS에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단일 ESS 사이트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사용량이 높은 피크시간대에 약 22만 5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Vistra는 천연가스, 핵, 태양광 등을 포함해 미국 내 39GW 규모의 발전 설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발전사다.

Vistra는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미국 발전사 Vistra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모스랜딩 지역에 가동 중인 모스랜딩 발전소 전경.

의 '모스랜딩 천연가스 발전소'의 퇴역한 노후 화력 발전 설비를 전력용 ESS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급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의 혁신적인 ESS 배터리 신제품 TR 1300 랙이 공급됐다.

기존에는 배터리 팩과 랙을 해당 ESS 사이트에 별도로 출하시킨 후 현장에서 조립해 ESS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배터리 랙에 설치 및 조립을 완료한 후

ESS 사이트로 출하시킴으로써 ESS 현장 설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또한 고성능 배터리 셀이 적용된 TR 1300은 배터리 랙의 2단 적재가 가능해 공간 효율성은 높이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제품은 업계의 가장 엄격한 화재 관련 안전 표준도 충족하고 있다.

TR 1300 랙은 글로벌 안전인증 회사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열 폭주 화재 전이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방법 표준인 UL9540A 테스트를 실시했고, 화재는 인접한 배터리 랙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은 미국 토목공학회 ASCE 7-16의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 기준에 부합하며 지진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 중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장 신영준 전무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

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차별화된 ESS 배터리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며 "품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미국 ESS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배터리 기반의 ESS 설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사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전력망 ESS 시장 규모는 6.5GWh로 글로벌 전력망 ESS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연평균 54%의 성장으로 오는 2025년에는 현재보다 약 9배 수준인 55.3G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GS칼텍스, 국내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 도입  
지속가능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GS칼텍스가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해 ESG 경영에 앞장선다.

GS칼텍스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 인증을 획득한 스웨덴 에너지기업 룬딘사의 노르웨이 요한 스베드럽(Johan Sverdrup)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GS칼텍스의 일일 최대 원유 처리량은 80만 배럴로 이번 노르웨이산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은 3일 처리량 정도의 물량이지만,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GS칼텍스가 도입한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은 7월에 선적하며 오는 9월 중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룬딘사는 노르웨이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한 뒤 유럽 내 큰 규모의 석유개발



GS칼텍스 여수공장.

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요한 스베드럽 유전은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서쪽 140km 떨어진 해상유전으로 전체 매장량 27억 배럴, 일일 약 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16일 룬딘사는 요한 스베드럽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일반적인 유전보다 평균 40배 낮은 탄소를 배출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의 'CarbonClear' 저탄소 인증과 나무심기 등의 탄소 포획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 국제인증기준인 'VCS(Verified Carbon Standard)'의 인증을 받아 원유 생산이 전체적으로 탄소제로임을 최종

인증 받게 됐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회사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발맞춰, 세계 최초 탄소중립 원유 인증을 받은 룬딘사의 탄소중립 원유를 국내에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친환경 리더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해 저유황 중유를 공정 개선작업을 통해 동일한 열량에도 저유황 중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량 대체했다.

/김수지 기자

## 볼보, SSAB와 무화석 연료 강철 공동개발

전기·수소로 점결탄 대체 목표  
수소 환원철로 만든 SSAB 강철 확보

볼보자동차가 강철도 화석연료 없이 만들기에 도전한다.

볼보는 스웨덴 SSAB와 무화석 연료 고품질 강철을 공동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철광석을 만들 때 필요했던 점결탄을 전기와 수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최초의 기술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

SSAB는 스웨덴의 철광석 생산기업 LKAB와 에너지 기업, 바덴팔과 함께 합작사 하이브리트를 세우고 친환경 강철 생산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이끌어온 기업이다. 이번 협업으로 볼보자동차는 자동차 제조기업 중 최초로 하이브리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볼보자동차는 스웨덴 룰레오(Lulea) 소재에 하이브리드 파일럿 공장에서 수소 환원철로 만든 SSAB 강철을 업계 최초로 확보해 컨셉카를 비롯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볼보자동차

또한 SSAB는 2026년까지 무화석 강철을 상업적인 규모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볼보자동차는 자동차 생산에 이를 사용하는 최초의 제조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SSAB의 회장 겸 CEO인 마틴 린드 크비스트는 "우리는 최종 고객에게까지 완전히 화석 없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획기적인 기술은 사실상 탄소 배출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볼보자동차와 함께 미래 자동차를 위한 무화석 연료 철강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 KT, 웹캐시 그룹과 금융시장 선도 '맞손'

전략적 지분투자·사업협력

KT가 본격적인 금융 시장 선도를 위해 국내 1위 엔터프라이즈 핀테크 전문 기업 웹캐시 그룹과 손을 잡는다.

KT는 웹캐시 그룹과 전략적 지분투자 및 B2B(기업간) 금융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T 광화문 East 사옥에서 사업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KT 구현호 대표와 웹캐시 그룹 석창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웹캐시 그룹은 '경리나라'를 개발해 B2B 핀테크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웹캐시 그룹에는 기업의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웹캐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론',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플레이' 등이 속해 있다.

KT는 웹캐시 그룹의 웹캐시, 비즈플레이, 로움아이티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총 236억의 지분을 투자한다. 지난 4월 B2C 금융 기업뱅크샐러드 지분 투자에 이어 두 번째 금융 기업 투자행보다.

핀테크 시장은 지난 6년간 연평균 22.4% 성장을 기록했으며, 기업들의 DX(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라 B2B 핀테크 시장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KT와 웹캐시

그룹의 협력으로 B2B 금융 DX 시장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KT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플랫폼 기술력 및 유무선 인프라와 웹캐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핀테크 서비스를 연계해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고,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양사는 웹캐시 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경리나라', '비즈플레이'에 KT AI,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고도화 서비스인 'KT경리나라'와 'KT비즈플레이'를 출시할 계획이다. KT는 또 이 두 서비스에 기가지니 인사이트를 적용한 AI 기반 '아바타' 솔루션을 추가한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 아시아나, 워커힐 호텔과 '써머 패키지'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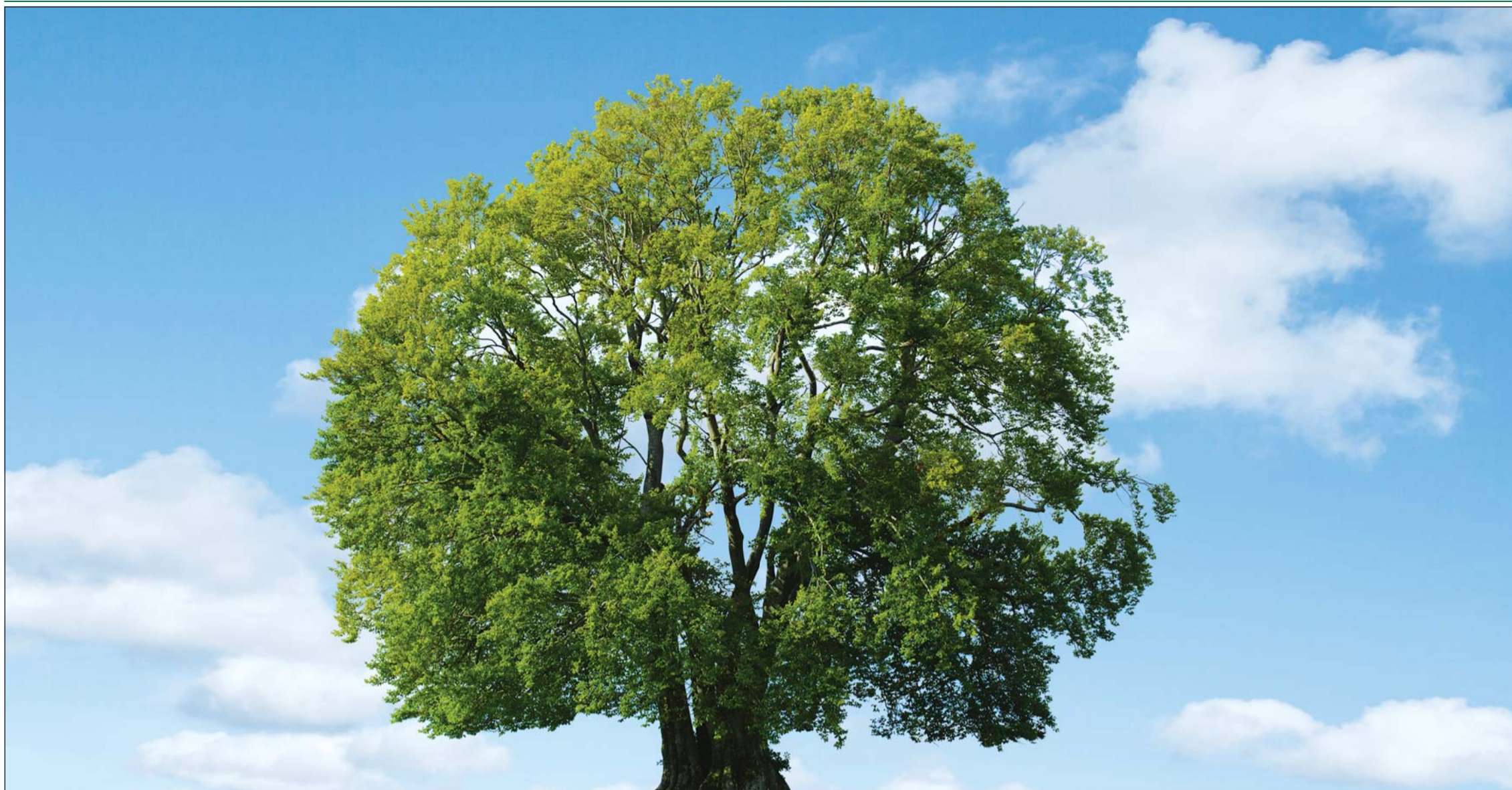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이 워커힐 호텔엔리조트의 '비스타 워커힐 서울'과 함께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아시아나클럽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로 비스타 워커힐 '써머 패키지'를 예약할 수 있으며 투숙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라고 밝혔다.

'써머 패키지' 3종은 모두 비스타 딜릭스 객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포레스트파크 입장권과 리버뷰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REFRESH 패키지 ▲조식과 라운지가 포함된 VIVID 패키지 ▲조식, 포레스트파크, 야외수영장 모두 이용 가능한 SPLASH 패키지를 최소 3만3500 마일리지부터 최대 7만 1500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하다.

단 본인 마일리지 사용만 가능하며 가족 합산 또는 양도 마일리지는 사용 불가하다.

/김수지 기자



## K-그린이 혁신이다

SK이노베이션의 한걸음 한걸음이  
K-그린의 위대한 길이 되도록

연비를 크게 개선하고 엔진을 보호하는  
친환경 윤활유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용기부터 성능까지 그 어떤 것도  
지구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세계를 놀라게 할 **K-그린**,  
SK이노베이션과 SK루브리컨츠가  
그 시작을 함께 합니다

*Hi* K-Green *Hi*!Innovation

# “친환경 대세” 정유사, 블루오션 ‘전기차용 윤활유’ 정조준

내연기관차서 전기차 전환 가속  
글로벌 전기차시장 규모 급성장

SK루브리컨츠, 2010년부터 개발  
시장 성장세에 올 판매량 2배 예상  
GS칼텍스, 윤활유 브랜드 론칭

정유업계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이라는 흐름에 맞춰 전기차 전용 윤활유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전세계적인 친환경 규제가 강화함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용 윤활유’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자동차 시장은 최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올해 전기차 시장 규모가 약 394만대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시장 규모 228만대 대비 70%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또한 2025년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에는 약 1,126만대로 전기차 시장이 대폭 커질 것이라 분석이다. 정유사가 전기차용 윤활유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유다.

전기차용 윤활유는 전기모터 및 기어 등의 열을 빠르게 식히고, 차량 구동계

내부에서 불필요하게 흐르는 전기를 차단해 에너지 손실과 마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모터 각 부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기계 효율을 향상시켜 전기차의 주행거리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사업 자회사 SK루브리컨츠를 통해 2010년부터 전기차용 윤활유의 개발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SK루브리컨츠는 2013년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용 윤활유 공급을 했고, 그간의 공급물량은 전기차 약 70만대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SK루브리컨츠는 최근 2년간 전기차용 윤활유의 판매량이 연평균 33% 증가했다. 올해 판매량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배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루브리컨츠가 생산하는 윤활기유 ‘유베이스’는 고급 윤활유의 원료인 고급기유 윤활기유 시장에서 35%의 시장 점유율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GS칼텍스도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용 윤활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GS칼텍스는 최근 전기차 전용 윤활유 브랜드인 ‘Kixx EV(키스 이브이)’를 론칭했다. 다만 전기차용 트랜스미션 윤활유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전기차용 냉각계 윤활유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특히 GS칼텍스는 미국 연구기관 SwRI에서 주관하는 전기차용 윤활유 개발 컨소시엄에 참가해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전기차용 윤활유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트랜스미션 윤활유를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공급 중이다. GS칼텍스는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윤활유 및 제품 용기의 개발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용 윤활유 시장은 지난해 1,000만 L에서 2025년 6,000만 L로 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4%가 넘는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현대모비스, 세계 최초 ‘라이팅 그릴’ 개발

차량 전면 그릴에 LED조명 탑재  
운전모드나 사운드 따라 조명 변화  
보행자·다른 차량 등 외부와 교감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를 겨냥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냈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전면 그릴에 LED 조명 기능을 적용한 ‘라이팅 그릴’과 그릴 자체를 개폐할 수 있는 ‘그릴 일체식 액티브 에어 플랩’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한 연구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외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길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대중화로 색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시도되는 상황,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그릴



라이팅 그릴.

/현대모비스

을 개발했다.

‘라이팅 그릴’은 차량 전면부 그릴 전체를 조명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자율주행 모드 ▲ 전기차 충전 모드 ▲ 웰컴 라이트 기능 ▲ 사운드 비

트 표시 ▲ 비상 경고등 표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조명 효과가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명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강렬하고 독특한 디자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라이팅 그릴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객사 프로모션 등을 통해 양산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릴 일체식 액티브 에어 플랩’ 기술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그릴 자체가 움직이면서 엔진 및 모터 냉각을 위한 주행풍 유입을 자동 제어하고 여기에 조명 기능까지 활용한 것이다. 차량의 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고 공기의 저항을 줄여 연비와 전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조명을 통한 차별화된 디자인 패턴을 통해 차량 외관 디자인의 고급감까지 구현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기아스토어

/기아

## 기아 쇼룸·전시장, ‘기아스토어’로 새단장

새 브랜드 지향점 담은 디자인  
국내외 7000여개 매장에 적용  
고객 체험·소통 공간으로 진화

기아가 판매 거점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꾸민다.

기아는 17일 ‘기아스토어’ 매장 디자인 표준을 공개했다. 지난 2월 동탄역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앞으로 7000여개 국내외 매장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올 초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미래 전략을 밝힌 후 후속조치다.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삶에 영감과 여유를 선사하고자, 공간이라는 고객 접점에 전략을 반영했다.

기아는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공간을 목표로 새 디자인 표준을 만들었다. 고객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름은 기아 스토어다. 쇼룸이나 전시장 등이 아니다. 전동화 시대를 맞아 개인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 공간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디자인 철학은 ‘오픈잇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다. 고객 최우선의 영감을 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자 대비적인 개념을 결합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창

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성은 전시존과 고객존으로 나뉜다.

전시존은 무채색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스틸 소재를 활용해 차량을 더 돋보이게 한다. 고객존은 우드톤으로 미니멀하고 자연적인 감성을 가미한 따뜻한 공간으로 연출했다.

두 공간을 가로지르는 루프 형태 조명도 배치했다. 레드컬러로, 두공간 대비를 통한 시너지를 표현했다.

내부에는 기아 브랜드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니크한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특히 고객이 직접 만지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의 소재를 중요하게 고려해 가구와 소파의 경우 좀 더 부드럽고 직조감이 있는 소재로 구성했다.

또 전시존 내에서 차량을 바라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운지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다목적 바 테이블 등을 마련해 방문한 고객이 보다 편하게 차량을 볼 수 있고, 또 외부의 고객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기아는 ‘기아스토어’가 단순한 자동차 매장이 아닌, 고객들을 위한 허브로서 새로운 차량 구매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아는 3분기 중 기아 360을 새로 선보일 예정으로, 정비 거점 등에도 새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 현대차, 전기차 레이스에 벨로스터 ‘NETCR’ 출격

현대자동차 ‘N’ 브랜드가 전동화에도 실력 발휘에 나선다.

현대차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발레롱가 서킷에서 열리는 ‘퓨어ETCR’ 개막전에 벨로스터 NETCR로 출전한다고 17일 밝혔다.

퓨어 ETCR은 올해 처음 열리는 순수 전기 투어링카 레이스다. 전기차 레이스 기준을 세우고 배기가스 없는 이동수단으로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현대차그룹은 단독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4대를 공급해 진짜 친환경 전기를 제공한다. 전 경기에 사계절용 단일 타이어 모델을 사용하고 수상 운송 수단 사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도 이 대회 특징이다. /김재용 기자

## SKT “영어공부 ‘잼플레이스’서 배워요”

마포 어린이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 영어 놀이형 클래스 ‘꿀잼스쿨’ 운영

아이주도형 영어놀이공간으로 개관 3개월 만에 마포 지역 핫플레이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잼플레이스(ZEM PLAYS)’가 새로운 고객 참여프로그램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마포에 위치한 아이들 대상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인 잼플레이스에서 영어 놀이형 클래스 ‘꿀잼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23일 오픈한 잼플레이스는 SKT의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유무선 통합 브랜드 ‘잼(ZEM)’의 첫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 아

이들이 방과 후 편히 들러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통해 영어를 즐기고 몰입하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예약 방문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모든 시간대 예약이 마감돼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특히, 방문자의 72% 이상이 마포구·용산구 등 인근 지역 거주자이며, 지인 추천을 통한 방문이 54%에 이르러, 마포 지역 커뮤니티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7점 만점에 6.2점 정도로 만족도도 높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 ‘여름 보너스’ 중간배당 앞둔 은행株... 상승랠리 기대감

금융권 배당 축소 권고 이달 만료  
KB 등 4대은행 배당 확대 움직임  
올해 1분기 국내은행 NIM 1.43%  
실적개선·배당확대 주가 긍정적



중간배당이 예상되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은행의 배당 제한 권고조치도 이달 말 만료된다. 은행은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중간배당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은행주 주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오는 6월 말까지 적용한다.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포함) 성향을 기존 25~27% 수준에서 20% 이내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경

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배당 제한 권고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주주환원을 위해 분기나 중간배당 확대를 준비 중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하나금융을 제외한 KB·신한·

우리금융의 경우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JP모건이 주관한 해외투자자 대상 온라인 기업설명회(IR)에 4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중장기적인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JP모건은 KB·신한·하나금융의 주요 주주이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배당 성향을 2023년까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보다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최고 수준의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다양하고 신축적인 주주 환원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배당성향이 중장기적으로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며 배당 확대의지를 재확인했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

장 대신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05년 창사 이래 매년 중간배당을 이어왔다.

또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이뤄져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던 순이자마진은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반등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NIM은 1.43%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1.38%)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과 배당확대가 이뤄진 후 은행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은행주들은 올해 들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는 29.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의 상승률(13.4%)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이어 KB금융(28.8%), 신한지주(28.5%), 우리금융지주(17.6%)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은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한 NIM 개선 효과는 2분기에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기대출 금리 반등 여부가 하반기 NIM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시점을 전후로 점진적인 정상화 과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4월 이후 은행주 강세는 NIM 개선이 크게 기여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에 향후 은행주는 상승세가 지금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2분기까지 NIM 확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은행 이익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이익 자체보다는 금리와 순이자마진, 그리고 배당 등의 투자 변수가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사업 착공

부하리 대통령 등 추진 공식화  
Train 8 사업 추가 참여 기대



나이지리아 보니 LNG플랜트 전경.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보니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 원청사로 참여하고 있는 NLNG Train 7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NLNG Train 7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의 보니섬에 위치한 LNG 액화플랜트 및 부수설비로 계약금액은 총 5조 1811억원이다. 원청사로 참여한 대우건설의 지분은 약 40% 수준으로 약 2조 669억원 규모다.

이 프로젝트는 일부 글로벌 건설사들이 독식해온 LNG 액화 플랜트 건설 EPC(설계·조달·시공) 시장에 대우건설이 원청사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NLNG Train 1호기부터 6호기 중 5개를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며 나이지리아 내 최고의 건설사로 인지되고 있는 대우건설의 풍부한 사업 경험, 보유 리소스, 현지 사정

에 적합한 수행계획 등이 높게 평가되어 수주에 성공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5월 NLNG Train 7 원청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설계 및 구매 업무를 중심으로 공정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LNG 액화플랜트 8호기의 추진을 공식화해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건설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는 만큼 향후 Train 8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되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주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나이지리아 NLNG Train 7 사업은 대우건설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 국내·美 물가 연동채 ETN 등 4종 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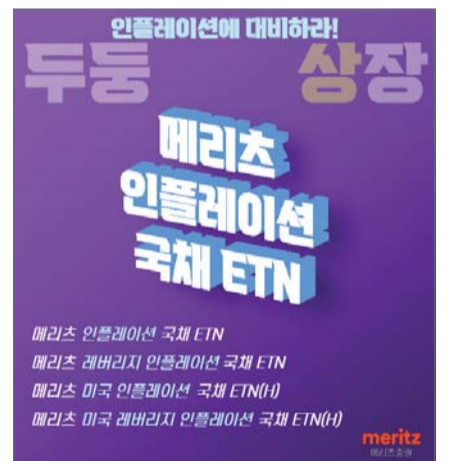
메리츠증권, 국내 ETP 시장 첫 시도  
물가 따라 채권 원금·이자 동시 ↑

메리츠증권이 국내 물가연동 국채와 미국 물가연동채(TIPS)를 각각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ETN) 4개 종목을 상장했다. 국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에선 첫 시도인 만큼 향후 성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메리츠증권은 한국거래소에 ▲메리츠 인플레이션 국채 ETN ▲메리츠 레버리지 인플레이션국채 ETN ▲메리츠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ETN(H) ▲메리츠 미국 레버리지 인플레이션국채 ETN(H) 총 4개 종목을 상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며 물가연동국채와 미국 물가연동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상황이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ETP 시장은 이와 관련된 종목이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려야만 했다”면서 “메리츠증권의 이번 4개 종목



상장으로 투자자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 인플레이션 국채 ETN은 물가연동국채 3개 종목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메리츠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ETN(H)는 미국 물가연동채 3개 종목을 추종한다.

환헤지를 실시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해외시장에 상장된 ETP와 차별화된 요소다.

4개 종목 기초지수는 모두 KAP(한국자산평가)에서 산출하며, KAP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 KB증권 고객패널 KB스타 메신저 모집

설문 적극참여 고객 중 40명 선정  
서비스 향상 위한 제안 활동 수행

KB증권이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고객 패널 ‘KB스타(star) 메신저’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KB증권은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고객 패널 제도인 ‘KB스타 메신저’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KB스타 메신저’ 7기 고객 패널은 사전 온라인 설문에 응답해 적극

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문에서 고객패널 참여의사를 밝힌 고객 중 총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 온라인 설문은 최근 KB증권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했거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고객 중 선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LMS) URL을 발송해 진행한다.

선정된 고객패널은 ▲온라인전용 금융상품(펀드/ELS 등)과 ▲MTS(M-a-ble) 이용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KB증권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 의견이나 요구사항 등 제안 활동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기자

투교협, 온라인 특강 진행

## ‘인플레이션과 금융정책’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인플레이션(Inflation)과 금융정책’이란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이종우 전(前)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진행한다. 시청방법은 투교협의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중 편리한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전년도의 낮은 물가에 의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과 높은 원자재 가격이 더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미경 기자

## 한국투자증권, ELW 235종목 신규 상장

지수형 69종목, 종목형 166종목  
적은 투자금액으로 고수익 기대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위험트증권(ELW) 235종목(종목번호는 57GJ21~57GL61)을 신규 상장했다고 17일 밝혔다.

ELW는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이나 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직접 매매할 때보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상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69종목과 포스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66종목이다. 종목별 만기일은 올해 9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 다양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상장 235종목을 포함해 거래 가능한 ELW 총 1673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ELW 발행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송태화 기자

# 백화점, P코로나 대비 본격화... 동탄·대전 등 신규오픈 예고

**현대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 오픈 롯데 쇼핑몰형 백화점 오픈 예정 신세계 8월 사이언스콤플렉스 개점**

코로나19 속에서도 오는 8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나란히 신규 점포 문을 연다. 2021년은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에 의미있는 해다. 신규출점 '제로'를 깨고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같은 해 오픈하는 것.

출발선은 현대백화점이 끊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더 현대 서울'을 열었다.

그리고 8월 롯데백화점이 경기도에 동탄점을 연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쇼핑몰형 백화점을 컨셉으로 한다. 영업 면적 2만 300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으로 구성된 초대형 규모로 들어선다. 영업 면적으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동탄역 복합환승센터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와도 인접해 고객들의 발길이 몰릴 것



롯데백화점 동탄점 조감도



롯데쇼핑 대전신세계 조감도

신세계그룹

으로 기대된다.

롯데백화점은 동탄점을 통해 수도권 남부를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외명품과 패션소비를 즐기는 3040대 육아맘을 주요 타겟으로 해 동탄 지역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롯데쇼핑 측은 "동탄점을 프리미엄 브랜드와 각종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매장으로 만들어 경기 남부 상권의 3040대 구매층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8월 대전 지역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대전 유성구에 연면적 28만3466㎡ 규모의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개점한다. 사이언스콤플렉스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사이언스타워와 판매시설인 백화점 등이 들어선다. 기존 대전 지역 1위인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충청권 전체를 배후 수역으로 보고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시설을 넣어 지역 1위에 올라

서겠다는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는 올해 신규출점이 오프라인 유통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백화점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 명품 선호 트렌드로 인해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6832억원, 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336%가 늘었다. 신세계는 매출액이 1조3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

했고 영업이익은 1236억원으로 3659%가 뛰었다.

롯데쇼핑의 경우 매출액은 3조8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618억원을 기록하며 1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그 보상으로 명품 매출이 늘어났으며, 나들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패션·잡화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월 문을 연 '더현대 서울'은 오픈과 동시에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 개념을 적용한 '더현대 서울'은 백화점 안에 실내 공원과 인공 폭포를 선보이는 등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공간 디자인과 혁신적인 매장 구성으로 고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오픈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우선 매수권 행사한 성정... 28일부터 정밀실사

### 이스타항공 인수전

**쌍방울 광림 제시조건 1100억 수용 자금 여력 의구심... 인수 확산 일러**

이스타항공이 끝내 새 주인으로 종합건설업체 '성정'을 맞게 됐다. 다만 최종 인수까지 마무리할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게 문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성정은 이날 오전 9시 이스타항공 매각 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인수의사를 밝히고, 서울회생법원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던 쌍방울그룹 광림과 우선 매수권자였던 성정의 2과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끝내 성정에서 쌍방울그룹 광림이 이스타항공에 제시했던 인수 조건을 받아들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해 사실상 새 주인이 되게 됐다.

성정은 앞서 지난달 14일 우선 매수

권자(예비 인수자)로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1000억 원의 인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광림은 이보다 더 큰 약 1100억 원을 인수금액으로 본입찰에 써냈지만, 성정이 인수 금액을 올리면서까지 이 같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직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완전히 인수하기까지는 일부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양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남았고, 성정의 자금 투입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달 31일 매각주간사는 10여 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았지만, 예비실사 이후 쌍방울 광림만 단독으로 본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실사 후 예상과 다른 이스타항공의 부채 등에

부담을 느껴 본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성정은 코로나 여파로부터 항공업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버틸 자금의 여력이 충분하지도 의심받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9억 원, 5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8500억 원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시 당장 2,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며 노조와 다툼을 벌여온 만큼 성정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3일 "이스타항공 인수 후 부당하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라며 "대량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귀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복직 시킬 수 있는 기업이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손병환 HN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권준학 농협은행장(네번째)이 농협금융 브랜드 데이 행사 후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 “국민과 함께 성장... 더 나은 금융으로 보답”

### NH농협금융 브랜드데이

손병환 회장 “전문서비스 경험 확대”

NH농협금융은 1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2021 NH농협금융 브랜드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임직원부터 농협금융의 다양한 브랜드 자산을 바로 알고,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시공간에는 지난 2012년 농협금융지주 출범 이래 고객의 사랑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농협금융의 대표 슬로건·캐릭터·상품 및 서비스 브랜드가 탐치럼 쌓여 하나의 상징물로 표현됐다. 또한 오랜 세월 농업·농촌·농업인과 함께 해 온 '농협'의 심벌마크(심)를 전면에 내세운 포토존을 설치해 60주년을 맞이한 농협브랜드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더했다.

손병환 회장과 권준학 은행장은 출근길 임직원과 함께 전시물을 관람하며 농협금융 브랜드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손 회장은 "NH농협금융은 100% 민속자본을 바탕으로 전국 방방곡곡 농업인·국민과 함께 성장한 브랜드"라며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금융서

비스 경험을 제공해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금융은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는 그룹 공통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 고객의 생활 때 순간,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변함없이 금융전문가로서 함께하겠다는 임직원 모두의 의지를 표명해 왔다.

NH농협은행은 간편한 가입으로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 '올원뱅크'와 대표 캐릭터 '올리 & 윈이', 개인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NH자산플러스' 등 여덟 가지 브랜드를 선정해 전시했다.

특히 2016년 런칭 이후 7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선택을 받은 올원뱅크는 예금·대출·보험·카드 등 금융의 모든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며, 농협금융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자 하는 임직원의 진심을 담은 '내맘같이'와 '헤아림'을 각자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의 건강한 투자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MTS 브랜드 '나무'는 편리한 조작법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자체·특수관계 코인 상장 막는다

### 특금법 시행령 입법 예고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동명이인을 식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의 위험평가 기준 대상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융정보법 5조에 따라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고위험 고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

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고 업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신여의도 오피스텔, 투자만 하십시오

## 월세는 시행·시공사에서 책임보장! 5년간 80만원

### 실투자금 6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80만원 / 1억2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160만원

실투자금 = 분양가격에서 대출(70%), 임대보증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전세대 보증금
- 취득세 중과 제외
- 청약통장 무관
- 중도금 무이자
- 주택수 미포함
- 세대 창고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가 표준액 1억미만, 주택수 미포함 리브하임 오피스텔

### 임대수익 보장제 실시!

(최대 5년, 상세내용은 모델하우스에 문의)

### 임대수익보장제란?

입주시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보증임대로 지급!**  
보증임대로보다 더 낮게 계약시 **차액을 지급**

### WHY?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보장** | **공실우려 해소**

- 교통**
  - 5호선 영등포시장역 5분, 15호선 신길역 · 9호선 국회의사당역-약 800m
  - 인천 송도→여의도→남양주 마석,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 B노선(2027년 개통 예정)
  -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안산-시흥-여의도)
  -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강변북로, 2021년 제물포터널 개통(신월IC-여의도)
- 입지**
  - 파크원, IFC몰, 타임스퀘어, 현대 · 신세계 · 롯데 백화점 등 풍요로운 쇼핑
  -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63빌딩, CGV, 롯데시네마, 영등포 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 시설
- 환경**
  - 신월동→영등포→여의도 지상 공원화 - 국회대로 지상 테마공원 조성
  -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셋강생태공원, 산책 · 조깅 등 쾌적한 웰빙 주거
- 넘치는 수요**
  - 금융, 증권, 방송국 등 여의도 금융특구의 가치 등
  - 여의도 내 공공기관 221개, 금융기관 194개
  - 영등포구 내 사업체 수 4만 3천여 개, 종사자 36만 8천여 명
  - 문래동 제2 세종문화회관 (2025. 12 개관 예정)
- 수익성** **임대수익보장제란?** (최대 5년)
  - 입주시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 보증임대로 지급!
- 안전성**
  - 보증임대로보다 더 낮게 계약시 차액을 지급!
- 환급성**
  - 공실우려없이 안전한 투자를 보장합니다.
  - 갭투자, 고정적 월세 수익, 확실한 시세차익을 원하시는 분

●입금계좌:수협은행 / 1010-2034-8996 ●예금주:무궁화신탁 ●청약금:100만원

여의도 리브하임 오피스텔(복층) 총 154실 전용 19.02㎡ 140실 | 19.48㎡ 14실

시행사 (주)스마트지에이치 시공사 (주)건화종합건설(주) 신탁사 무궁화신탁

모델하우스 1588-0231  
사전방문예약/상담문의

# ‘과로사 방지 합의’ 파업 멈춘 택배··· ‘우체국 문제’ 불씨 여전

인력충원·자동화설비 도입하기로 주 60시간, 일 12시간 안넘게 노력 업계 “분류인력 추가투입에 최선”

‘상경투쟁’까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7일 현업으로 복귀했다.

전날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하지만 ‘잠정’으로 합의한 터라 불씨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원 65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2750여 명이 소속된 우체국택배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우체국택배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간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사, 노조, 정부, 정치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회의에서 택배노조가 이변에 집단 행동을 하면서 파업 원인으로 지목한 ‘분류 문제’ 해결에 대해 합의했다.



택배업계 노사가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북한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배송만 전담키로 한 것이 잠정 합의의 골자다.

앞서 택배기사의 상자 분류 업무 분담을 위해 CJ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000명씩을 현장에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들 회사는 하반기 중 분류인력을 1000명씩 추가 투입키로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기존 택배기사의 분류 부담을 100% 덜어줄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인원 추가 외에 자동화 설비 도입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약속한 분류인원을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휠소터 등 택배 분류를 위한 자동

화 설비를 99% 가량 도입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한진, 롯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는 자동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기로 했다. 자동화 설비 설치가 여의치 않다면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합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택배기사작업시간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다만 성수기인 설과 추석엔 밤 10시를 초과해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게다가 통상 1년에 한 차례씩 갱신해왔던 택배 영업점과 택배기사간 계약도 오는 7월27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맞춰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택배기사 부담금도 향후 택배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를 통해 지원하되, 이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잠정 합의되고, 택배노조도 파업을 철회했지만 우정사업본부(우본)와 택배노조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우본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잠정 합의한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기

업의 택배기사는 주 6일 80시간 근무에 박스 1개당 수수료 750원이지만,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50시간 근무하고 수수료가 개당 1219원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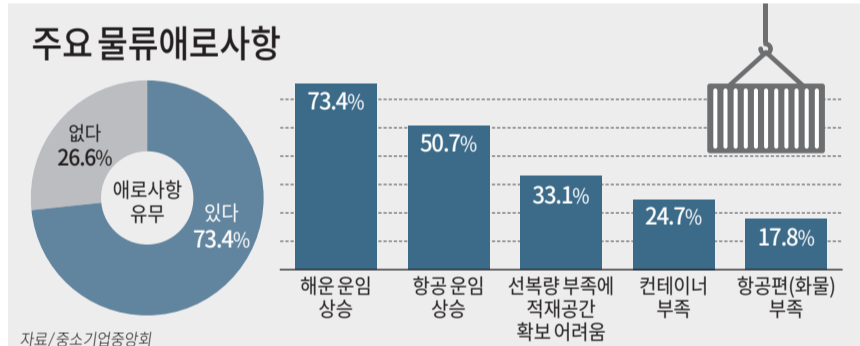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 조사와 택배노조의 지난 6월 보도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월평균 수입(502만원)이 민간택배기사(488만원)보다 많고 특히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민간택배기사가 내는 대리점 관리비(수입의 13~15%)도 없어 실질적으로 월 60만원 가량 많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체국 소속 소포위탁배달원 수입이 민간택배기사보다 많은데 왜 ‘생떼’를 쓰느냐는 것이 우본의 속내인 셈이다.

우본은 또 앞서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와는 다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노사협의회를 열고 ‘택배’ 명칭을 ‘소포’로 바꾸는 것도 합의했다.

‘택배 이슈’에서 우체국은 빠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수출입 中企 10곳 중 7곳 “해운·항공운임 상승 애로”

중기중앙회, 기업 519곳 대상 조사 선복부족 33%, 컨테이너 부족 25%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운·항공 운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미주 동부, 유럽 지역의 운임이 크게 올라 이들 지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 애로가 상당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운임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추가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입 중소기업 519곳을 대상으로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73.4%가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26.6%였다.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 애로(복수응답)는 해운운임 상승이 65.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항공운임 상승(50.7%) ▲선복 부족(33.1%) ▲컨테이너 부족(24.7%) ▲화물 항공편 부족(17.8%) 순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 애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선복 확보 및 운임

지원 등 정부지원 대책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바이어 납품기간 조정을 통해 대응하거나 본선인도조건(FOB)과 운임보험료 부담 조건(CIF)과 같은 무역계약 변경도 주요 대응책으로 꼽혔다.

또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 방안으로는 ▲운임지원 확대(58%) ▲선복 확보 지원 확대(17.5%) ▲컨테이너 확보 지원(10.2%) ▲화물 전세기 운항(7.3%) 순이었다.

물류 애로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60.5%의 기업이 영업이익 감소를 꼽았다. 제품 가격 경쟁력 저하(48.9%)와 운임상승으로 인한 해외 거래처 감소(25.2%)도 적지 않았다.

특히 영업이익 감소와 관련해선 응답기업의 26%가 물류운임 상승이 영업이익을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10%를 넘는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액 가운데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 수입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로 각각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 소상공인조합 62곳 ‘메가쇼 시즌1’ 참가

소진공, 일산킨텍스서 판로지원

전국의 주요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 박람회에서 제품을 뽐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메가쇼 시즌1’에 소상공인 협동조합관을 꾸려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 사업’에 선정된 62개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가락시장농수산식품협동조합(황토소금, 육포, 쿠키 등) ▲고양식용꽃협동조합(꽃차, 꽃사탕, 저염꽃차소금 등) ▲금산진생협동조합(홍삼

/김승호 기자



## 웰스 ‘전기레인지 2구 인덕션’

웰스가 주방 공간 활용 편의성을 높인 ‘웰스 전기레인지 2구 인덕션’ (사진) 신제품을 내놨다. 이번 신제품은 두께 6.5cm, 무게 4.5kg 얇고 가벼운 포터블 방식으로 전원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두가지 메뉴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는 2구 인덕션을 채용해 메인 조리 기구로 활용하거나 식탁 위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고, 보온이 필요한 요리를 위한 보조 조리기로도 제격이다.

/김승호 기자

## 공영쇼핑,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오픈

공영쇼핑이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

17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이 판매하는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내 하단에 마련돼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의를 대표 이메일 접수를 받아왔지만 신고 이력관리나 조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신고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처리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메일과 SMS로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권리자는 신고 후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상품팀 강필선 팀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한솔홈데코 친환경 단열재 ‘PF보드’

한솔홈데코가 건축용 친환경 단열재인 ‘PF보드’ (사진)를 새로 선보였다. ‘PF보드’는 건물 벽면과 지붕의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축용 단열재료, 열경화성 플라스틱 수지를 친환경적으로 발포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고성능 제품이다. 한솔홈데코의 PF보드는 불에 잘 타지 않고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안전하며 이를 인정받아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서 준불연 인증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경제·안보 등 발전방향 제시

文 대통령, 스페인 국민방문

인더스트리 4.0·스타트업 MOU  
건설산업 ‘제3국 공동진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스페인에 국민 방문 가운데 ▲산업기술·혁신 분야 ▲스타트업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경제와 함께 보건협력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경제·문화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 결과, 문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양국이 195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가 발전한 점에 대해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



스페인을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W호텔에서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및 개막찬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스1

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정무 및 외교 ▲국제 및 다자 협력 ▲세계평화와 안보 ▲경제 협력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스포츠·인적교류·관광 등 6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페인은

인더스트리 4.0 협력·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스페인 건설 산업은 ‘제3국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경제 협력에 따른 세관 상호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양국 간 정책·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분야 부가가치 창출,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기술 공유 ▲고위급회의·세미나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스타트업 협력 MOU는 ▲양국 혁신 스타트업 정책 등 정보 교환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장려 ▲관련 전문가·공무원 상호 방문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관-기업 간 교류 증진 등을 골자로 한다.

양 정상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연구 협력을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과 스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필수적 교류 보장, 보건조치 사전 통보, 기술협력·지원, 자국민 보호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오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바르셀로나 경제인

협회 연례포럼(RCE)에 참석, 스페인 정·재계 인사들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례포럼은 스페인 내 가장 권위 있는 경제 행사 가운데 하나로 올해 ‘대재건 - 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연례포럼 만찬 연설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양국 경제인들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 글로벌 경제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디지털과 그린 분야뿐 아니라 건설·인프라,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손을 잡고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7일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스페인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기업 9곳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달성

작년 저공해차 32.8만대 판매  
르노삼성만 판매량 5% 줄어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 대상 기업 대부분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전체 저공해차 보급의 72%(23만7000대)를 차지했다. 다만,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줄어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10곳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총 32만8000여대다. 지난해 보급목표는 2016~2018년 연평균 판매량의 15%인 22만4074대였지만 조사 결과 22% 수준으로 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기업

들을 대상으로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이 판정 기준이 된다. 대상 기업은 현대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다,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10개사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 해당된다. 전기·수소차는 1종, 하이브리드차는 2종, 저공해 기준을 충족한 LPG차와 휘발유차가 3종이다.

지난해 10개사가 판매한 저공해차는 1종 6만7000대(4.5%), 2종 11만4000대(7.6%), 3종 14만8000대(9.9%)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당정 ‘맹폭’... 김기현 “덧셈 정치 펼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여당에 어려워진 경제 지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처절한 미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이라며 “눈을 가린 부끄러운 손을 내리고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정책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침체는 코로나 탓’, ‘집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 탓’,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안 되면 전부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 역대 집값 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과 기준

및 LTV·DTI 대출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적극 육성 ▲귀족노조 갑질 제동 및 노동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코로나19 백신 지원·보상 국가 책임제 도입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 한 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 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計)’를 펼칠 것이다.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 썬 장비 전용부품, 출고·통관 5일 단축

국표원, 반도체 안전인증대상 제외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가 없어져 출고·통관이 지금보다 5일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이 같은 사유로 안전인

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 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 부품기업 A사의 경우 지난해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소급’

권철승 중소기업장관, 정부입장 확인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대해 “소급하는 것은 같다”며 “손실보상으로 할지,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할지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권철승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

업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금 성격은 (기본적으로) 소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소급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은 꺼렸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대상이 제한되고 피해액 추계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체별로 소상공인별로 개인적

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식(소급 적용)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해 “대상이 극히 일부에 제한된다”며 “1년 이상 끌어온 재난 상황에 대해 손실 보상 방식을 소급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강준혁 수습기자

# 대학가 대면 수업 검토에 “이르다” vs “고려할 때” 팽팽

서울대, 2학기 대면 수업방안 확정 연세대 등 수강인원 제한 대면수업 교육부, 2학기 대면 개강 지원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각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신촌의 대학가 모습. /강준혁 수습기자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면 수업 확대를 검토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20대는 백신 접종에서 가장 뒷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벌써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서울대·연세대·한양대 등 대면 수업 확대 방안 마련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실험·실습 여부 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2학기 대면 수업을 확정 한 곳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총장 주재 수업 환경 개선 회의 끝에 2학기 대면 수업 방안을 확정

하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2학기 대면 수업을 위해 한 강의당 수강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학생 분산을 위해 기존에 강의가 없던 점심시간,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30분 이후,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와 서강대, 성신여대는 수강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대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도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 수업 진행을 확정

했다. 중앙대 등 다른 주요 대학들도 대면 강의 확대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활동을 원천적으로 중단했던 대학의 정상화가 멀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은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해 지난해 불거졌던 수업 질 하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우선 교육부가 마련 중인 지원 체계나 타 대학 상황을 보고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신 접종 못 하는 20대…“대면 강의 이르다”

그러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면 수업 확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대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며 환영하는 반응도 적지 않지만,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감염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모 씨는 “대면 수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도 백신을 다 접종한 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처럼 20대에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강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하는 약품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와 안센이다. 이 백신들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때문에 20대에겐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도 20대는 접종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여름방학인 7~8월 중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과 재수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비대면 수업 취약점 많다”…대면 수업 찬성 의견도

비대면 수업의 취약점 때문에 대면 수업을 바란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서강대에 입학한 대학생 한지연(20·가명) 씨는 “이번 주에 시험을 보고 방학을 하는데 아직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대화하고 있다”며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받는 수업은 집중이 잘 안 되는 등 부작용이 커 2학기에는 개강을 해서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 대면 개강을 위한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2학기 대학 대면 수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위해 교직원들이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이현진 기자·강준혁 수습기자  
lhj@metroseoul.co.kr

# ‘고려대 기사회생’… 75개 대학에 559억 지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지난 5월 중간평가, 73개교 지원 지속 연세대 중도 탈락, 성신여대 재진입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75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총 559억원의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이 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가 기사회생했고, 중도 탈락한 연세대 대신 성신여대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75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작년 선정된 75개 대학의 계속 지원 여부를 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간평가를 실시해 73개교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탈락시켰다. 두 대학은 전년도에 각각 사립대종합감사 등에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허위실적 기재가

적발돼 감점을 받아 절대평가 80점을 넘지 못했다.

중간평가에선 두 대학 이외에 수도권 5개 대학이 사업비 감액 제재를 받았다. 사업 탈락이 확정된 연세대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중도 탈락대학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탈락한 두 대학과 올해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4개교를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점수 상위인 고려대와 성신여대 2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선정평가에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 고교·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신청대학의 2021년 사업 운영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전형구조 단순화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감소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도 평가했다.

대학별 올해 사업 지원금은 채용사정관 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교육부는 7월 첫째 주 전후로 총 지원금의 70% 내외를 1차 지원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신청요건 중 정시선발 비율 확대 조건에 따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송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도권 선발 대학 중 15개교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동국대 경영학과가 16일 오후 2시 경영관 L501에서 ‘DBA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 동국대 경영학과, DBA 장학증서수여식

22명 학생에게 총 2200만원 지급

동국대학교 경영학과가 16일 오후 2시 경영관 L501에서 ‘DBA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22명의 학생에게 총 2200만원이 지급됐다.

경영학과는 동문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BA 스칼라십과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해외 탐방을 지원하는 ‘DBA 익스플로러 장학금’, 해외 유학지원금 및 본교 대학원 진학지원금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동국대 경영학과는 1956년 전국에서 4번째로 설립된 경영학과로 지금까지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도르가회, 장학기금 3000만원 기탁

누적 6억2000만원 기부 매주 수요일 바자회 개최

삼육대학교교회 도르가회가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그간 도르가회가 대학에 기부한 누적 장학금은 6억2000만원에 이른다.

17일 삼육대에 따르면 1960년대 조직된 도르가회는 삼육대학교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봉사 단체다. 일평생 이웃을 위해 구제와 선행으로 헌신한 성경 속 인물 ‘도르가’에서 이름을 따왔다.

도르가회는 매주 수요일 교내 체육관 앞에서 ‘장학기금 마련 수요바자회’를 열고 있다. 봉사자들은 직접 농수산물

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 오거나, 손수 발품을 팔아 지방 농가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가져오기도 한다.

믿을만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수익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바자회는 ‘도르가 장터’로 불리며 지역사회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모아 학교에 기탁된 장학금이 6억2000만원에 이른다. 장학금 집계를 시작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889명의 학생이 수혜를 입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과 추천으로 선발해 매년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고려대, 서울식물원 체험 VR콘텐츠 선봬

XR루다가팀, 서울 VR·AR 엑스포 참가

고려대학교가 서울 식물원을 바탕으로 체험자가 가상현실에서 건축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VR 체험을 코엑스에서 선보인다.

고려대는 건축학과 내 TF(태스크포스) ‘XR LUDAGA(루다가)’팀이 서울 코엑스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서울 VR·AR 엑스포’에 참가해 국내 최초로 건축 에듀테크 콘텐츠를 출품, 전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VR·AR 엑스포’는 메타버스의 주축을 이루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복합현실(XR) 핵심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 참가해 국내외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박람회다.

XR 루다가가 출품한 ‘건축 에듀테크 콘텐츠’는 서울 식물원을 바탕으로 한 VR 체험으로, 체험자가 가상현실에서 건축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콘텐츠 체험자는 3D 모델링 VR 채



서울 식물원을 바탕으로 체험자가 가상현실에서 건축물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VR 체험을 고려대 건축학과가 개발해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선보인다. /고려대

험을 통해 기존 2D 방식의 일방향성 건축 체험 방식을 뛰어넘어 3D와 동선 직접 선택의 방식으로 VR 상에서 건축물을 체험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ARIESGOLD

M C M L X X



## *Our Take on a Timeless Design*

블랙시(BLACK SEA) 운석 다이얼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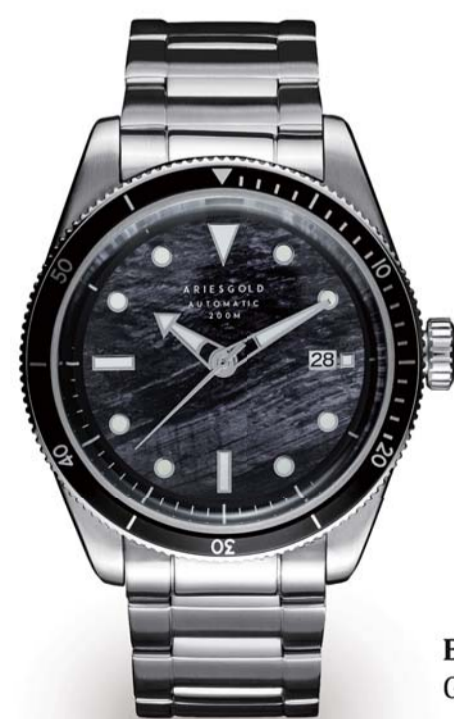
각각의 다이얼은 스페인에 떨어진 사라고사 운석에서 잘라낸 다음 산 처리되어 여러분이 보는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블랙시(BLACK SEA)의 운석 다이얼은 겹치는 디자인 없이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블랙시(BLACK SEA) 운석은 에리스골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멀리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목 위에’

©WARNINFWALLET 1855-0628 ariesgold.kr



**BLACK SEA**  
G9027 S-BKT-MB

광주시-SKT-IDQ, 양자산업 활성화 협력

# 양자기술 공공·행정분야 도입... 광융합산업 선도도시 조성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MOU 산·학·연·관, 혁신기술 확보 협력 정부 정책지원 요청 공조 대응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와 SK텔레콤·IDQ가 '빛 고을' 광주에 양자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와 SK텔레콤, IDQ코리아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R&D, 공공·행정 분야에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SKT 조영록 CR성장지원실장, IDQ코리아 하민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양자분야 협력이 논의되는 등 국내

외에서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측 협력 발표가 국내 양자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측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서는 등 광주시에 양자 관련 기술과 인력·산업이 집중될 수 있는 생태계

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光)산업'을 선도해 왔던 광주는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 양자기술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향후 양자산업이 결합된 광융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T는 광주시에 양자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는 R&D 및 공공·행정 분야에서 양자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정부 사업인 '디지털 뉴딜' 중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하고,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요청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SKT는 또 광주에서 준비 중인 'K-헬스 공공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생태계 구축' 사업 관련 데이터 보안 강화 방안으로 양자암호기술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글로벌 ICT 리더인 SK텔레콤과 양자산업 대표기업인 IDQ, AI 중심도시 광주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기술개발과 적용 분야 확대·발굴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SKT 조영록 CR성장지원실장은 "최근 양자기술에 대한 국가적 욕망을 주요 골자로 하는 'ICT 특별법'이 시행돼, 이번 협약의 의미가 더 크다"며,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을 통해 양자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용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무안군 관내 요식업체 컨설팅 실시

전남 무안군은 지난 2월부터 음식관 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요식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 보급 등 무안 맛집 육성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무안연꽃축제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컨설팅은 TBK외식창업전략연구소와 조리의 명인 구본길 대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효종갱 낙지전골 등 신 메뉴 30여 종을 업체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또한 업체와 전문가들은 시식 평가회 준비를 위한 위생관리와 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여수산단 내 15mW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들어선다

여수시 동서발전-GS칼텍스 투자협약 2023년까지 발전소 건설 1000억 투입 권오봉 시장 "수소산업 생태계 견인"



17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수소경제활성화 및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여수시는 17일 상황실에서 한국동서발전, GS칼텍스와 '수소경제활성화 및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동서발전과 GS칼텍스는 여수 국가산단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에 1천억 원을 투자해 15MW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2023년까지 짓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석유화학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순수한 물만 발생된다.

부생수소를 이용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소음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CO2 등 대기오염물질과 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동서발전과 GS칼텍스는 소속 직원들의 여수 거주, 여수 시민 채용, 지역물품 우선 구매, 지역기업 우선 이용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여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두 기업과 투자협약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성장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

목포시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목포시가 관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맛의 도시9미(味)·특산물 활용 취·창업지원사업'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취·창업 의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확보해 '맛의 도시' 목포의 특성에 맞춰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외식업 및 특산물 등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또는 외식업종 창업 2년 미만(교육 후 창업 업종 변경 조건) 여성을 대상으로 총 32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은 9미(味)·특산물 활용 외식 전문·개발 교육(80시간)과 창업기초 및 전자상거래 교육(40시간)을 제공받는다. 시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외식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12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 영양군,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차별 검토 "동천 걸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즐기세요"

컨설턴트 초청해 담당자 대면 컨설팅

영양군은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전문가(컨설턴트)를 초청해 1대1 대면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대면컨설팅은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9개를 선정,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전문 컨설턴트와 사업담당자가 본인의 사업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1대1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했다.

영양군은 세출예산 단위사업 120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사업, 영양군 SNS홍보단 운영 등)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가 19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담당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주요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정책개선과 반영 계획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평가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양군은 "영양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전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순천시 20일 생태체험마켓 오픈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증가와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20일 동천 장대공원에서 생태체험마켓을 연다.

순천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삼산풍류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5시부터 시작되어, 목공체험, 어린이 생태탐사, 페트병 뗏목체험, 버스킹 공연과 프리마켓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생태탐사는 생태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동천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일명 순쓰단)은 참여자에 한하여 봉사시간 1시간을 인정받는다. 어린이 생태탐사와 순쓰단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 가능하다.



또한 페트병 뗏목체험은 페트병으로 만든 뗏목을 타고 동천 건너기를 시도해 눈여겨볼 만하다.

양지현 대표는 "새로운 도전에 많은 시민들의 응원을 바란다"며, "보물찾기, 생태운동회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타 지역 외출이 힘든 시기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삼산풍류단은 순천대학교를 기반으로 학생·청년·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6년부터 대학교 대표축제 '고고장'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순천(전남)=김진수 기자 jsk6239@

담양군 민주평등 위원 추천기준 마련

담양군은 추천의 다양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2년 임기의 군협의회 자문위원 35명 중 담양군수가 추천하는 11명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자 선정에 있어 관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 협의회에 2회 이상 자문위원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관내 읍·면별로 안배 지역 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균형 있게 표출하도록 했다.

/담양(전남)=최영성 기자 dudtkd2343@



# “화장품 폐공병, 버리나요?... 굿즈 만들고, 리필해 씹니다”

## Q 르포 | 친환경 선도하는 뷰티체험공간 두 곳 가보니

소비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미닝아웃’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인해 유통가에는 친환경·비건 관련 키워드가 자리 잡았다.

오픈서베이가 지난해 발간한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Z세대의 51.5%와 밀레니얼 세대 54.7%가 착한 소비를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에 뷰티 업계는 MZ세대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17일 대표 체험공간 두 곳을 방문했다.

### ◆공병공간에 담긴 친환경 철학

안국역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길, 기존에 보던 매장과는 다른 이니스프리 매장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이니스프리가 23만개의 공병을 분쇄해 만든 ‘공병공간’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이니스프리가 수거한 공병 깃수가 한쪽 벽면에 적혀 있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업사이클링 아틀리에’를 마주하게 된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매장 중앙의 ‘플레이그린 아일랜드’다. 초록색 분쇄

조각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는 이니스프리의 히트 상품 ‘그린티 씨드 세럼’ 공병을 분쇄한 조각들로 화장품 공병이 분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테이블 각 면에는 이니스프리의 공병수거 캠페인 관련 스토리를 담아 자원 순환의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이니스프리의 기업 철학을 알 수 있다.

공병공간 안쪽에는 아트드로잉 클래스존이 있다. 매장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사용 기한이 끝난 메이크업 테스트 제품 등으로 컬러링 엽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매니큐어와 립 제품, 새도우 등을 이용해 채색하기 때문에 일반 미술도구와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매장 입구 옆에 위치한 ‘업사이클링 아틀리에’에서는 굿즈가 제작된다. 공병 수거 캠페인에 참여 후 직원에게 원하는 색상의 공병 분쇄물을 전달하면 직원이 플라스틱 분쇄물을 녹여 튜브짜개로 재탄생시킨다. 튜브짜개는 치약이나 닦아주는 로션을 짜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공병공간’은 2003년부터 ‘공병수거



서울 안국역 근처에 위치한 이니스프리의 친환경 매장. /손진영 기자 son@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아로마티카 제로 스테이션. /원은미 기자

**이니스프리 ‘공병공간’**  
23만개 공병으로 인테리어 분쇄과정 보여주고 굿즈 제작 사용기한 지난 립으로 컬러링

**아로마티카 ‘리필스테이션’**  
사무실용품 분쇄해 테이블 토너·샴푸 등 18종 리필 타사 제품용기에도 가능

캠페인’을 진행해온 이니스프리가 자원 순환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선보인 매장이다. 2017년 6월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첫 선을 보인 ‘공병공간’은 80년된 목구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한옥 두 채를 연결하고 23만개의 이니스프리 공병으로 만든 마감재를 인테리어에 활용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달 리뉴얼 오픈해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과 만나고 있다.

이니스프리 측은 “공병공간은 리뉴얼 오픈 후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정확한 방문객 수치 공개는 어렵지만 약 5배 정도 고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공병 지참해서 리필해요!

뷰티 업계가 친환경 체험존에 공을 들이는 것은 비단 이니스프리뿐이 아니다. 클린 뷰티를 지향하는 아로마티카도 본사가 위치한 건물 1층에 브랜드의 철학을 가득 담은 리필 스테이션(제로 스테이션)을 마련해놓았다.

유기농 원료 및 안심할 수 있는 자연 유래 원료 등을 중시하는 아로마티카는 제로 스테이션 앞마당에 주성분 중 하나인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심었으며, 기존 사무실 용품 등을 분쇄해 만든 티 테이블, 페유리를 혼합해 굳혀 만든 바닥 등을 설치해놓았다.

이날 찾은 제로 스테이션 입구와 벽면에는 ‘무한 플라스틱 사이클’이라고 해서 고객이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이 선별돼 플레이크로 변환(분쇄)되고, 그것이 플라스틱 조각(펠릿) 단계를 거쳐 재활용 용기로 거듭나는 순환의 과정을 설명해 놓았다.

내부에 들어서면 아로마티카가 처음 내놓은 자사만의 공식 오프라인 공간답게 아로마티카의 전제품이 전시돼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고객이 공병을 들고 오면 샴푸, 컨디셔너, 토너, 바디워시

등에 해당하는 18종의 상품을 용기에 원하는 분량 만큼 담아갈 수 있다. 아로마티카 제품의 용기이든, 타사 제품 용기이든 상관없다.

아로마티카 제로 스테이션의 관리사는 “맑을 때는 (제로 스테이션) 매출의 반이 리필 판매를 통해 이뤄진다”며 “제로 스테이션이 오픈한 지 한달 가량 있었는데 재구매 및 재방문을 해주시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로마티카는 지난 4월 말, 본래 본사 건물 2층에 있던 브랜드 체험관을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1층에 재오픈시켰다.

컬러 테라피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오일과 오일 컬러를 나열해두고 고객이 6가지 중 끌리는 색깔의 카드를 한장 고르면 그날에 부족한 성격이 나온다. 예를 들어 보라색 카드를 꼽으면 ‘예술성, 감수성’ 등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키워드에 해당하는 향을 지닌 오일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현재 아로마티카 제로 스테이션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와 인증샷을 남기고 제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가는 등 절찬 운영되고 있다.

/신원선·원은미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난 15일 기자가 직접 체험해본 이니스프리 공병공간의 드로잉 클래스.



아로마티카 제로 스테이션에서 공병에 샴푸 제품을 소분하는 모습.

# 롯데백 “나만의 찰떡컬러 컨설팅 해드려요” 하이트진로, 회사채 신용등급전망 ‘긍정적’

## 청량리점에 ‘컬러라이즈’ 입점 피부색 진단하고 퍼스널컬러 제안 MZ세대 인기, 연계 구매로 이어져

베스트 컬러가 아닌 퍼스널 컬러 시대에 맞는 브랜드가 백화점에 들어왔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3월 청량리점에 오픈한 ‘컬러라이즈’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컬러라이즈’는 고객의 피부색을 진단해주고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제안해주는 브랜드다.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퍼스널 컬러 컨설팅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은 청량리점 ‘컬러라이즈’가 처음이다. 최근 유튜브, 문화센터 강좌, 모바일 앱 등으로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것이 MZ세대의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롯데백화점이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신규 도입한 것이다.

오픈 이후 약 3개월 동안의 방문 고객



롯데백화점 컬러라이즈에서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하는 모습. /롯데백화점

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찾고 싶어하는 10~20대 MZ세대의 방문이 무려 85%였으며, 기존에 백화점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신규 고객의 구성비가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관 구매율도 60%에 달했다. ‘컬러라이즈’ 방문 후 F&B를 이용하거나 의류, 화장품 등 결과 보고서에서 추천해준 컬러를 연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추후 보고서를 지참해 청량리점을 재방문하는 경우도 많았

다. 남성 고객도 20% 수준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리점 ‘컬러라이즈’에서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 동안 컨설팅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부 타입에 맞는 컬러 립스틱을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증정하고, 결과 보고서 지참 후 VIP B AR 방문 시 커피 2잔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신규 고객 및 MZ세대들의 백화점 유입을 위해 하반기 ‘컬러라이즈’ 매장 추가 오픈을 검토 중이다. /신원선 기자

## 시장 점유율 오르면서 상향조정

하이트진로는 나이스신용평가가 정기평가한 결과, 기존 ‘A(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등급전망이 한단계 상향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신용평가(지난해 12월), 한국기업평가(지난 2월)의 신용등급전망 ‘긍정적’ 평가에 이어, 국내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신용등급 상향평가는 소수업체 1위로서 ‘참이슬’, ‘진로’ 등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맥주 ‘테라’의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의 흑자를 이루는 등 맥주와 소주의 시장 점유율이 함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하이트진로는 분석했다.

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주류 시장 개선 및 재무구조 개선 전망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올해 1분기까지 매출액은 5350억원, 영업이익은 529억원을 기록,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오리온 ‘치킨팝’ 재출시 2년 만에 5000만봉

오리온은 치킨팝(사진)이 2019년 2월 재출시 이후 2년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 봉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분에 40개 이상 팔리며 전국민이 1봉씩 먹은 셈이다.

치킨팝은 닭강정 같은 매콤달콤 강한 맛과 팝콘처럼 한입에 들어가는 크기로 인기를 모았으나, 3년 전 공장 화재로



생산라인이 소실돼 생산이 중단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리온은 2019년 2월

치킨팝을 다시 선보였다. 오리온은 치킨팝의 양을 기존 대비 10% 늘리고 국산 쌀가루를 더해 바삭한 식감을 개선했다. /조효정 기자

# “대체제 소개해도 듣지않아... 수량확보, 장기대책 세워야”

## Q 르포 | ‘타이레놀 품질 사태’ 약국 가보니

정부가 “타이레놀 복용” 언급에 판매량 급증 ‘품질 사태’ 빚어 약국마다 일단 100개씩 채워놨

정부가 전국 약국에 타이레놀을 100개씩 공급하면서 ‘타이레놀 품질 사태’가 진정되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에서 백신 접종 후 복용하는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언급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은 ‘타이레놀 쏠림현상’은 지속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 당장 급한 불은 끄었지만, 하반기 접종이 지속되는 만큼 장기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든 지적도 이어졌다.

### ◆타이레놀 수급 숨통 트어

16일 오전 기자가 방문한 서울 서초구와 마포구 일대 약국들은 대부분 15~16일에 걸쳐 타이레놀을 공급 받았다고 밝혔다. 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량이 충분한 약국들도 대부분 일단 100개를 채워놨다고 했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타이레놀을 고

집한 영향이 컸다.

서초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는 “타이레놀을 사러 온 어르신들께 대체제를 아무리 소개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품명을 언급한 것을 이해하지만, 해당 제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타이레놀 품질 사태는 정부의 발표에서 시작했다. 지난 3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 효과가 없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며 상품명을 언급한 이후 타이레놀의 판매량은 급증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편의점 등에 공급된 타이레놀 물량은 2020년 4월 기준 약 3000만개에서 올해 4월 4900만개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뒤늦게 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70여종을 소개하며 홍보에 나섰지만 타이레놀 품귀



16일 오전 방문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 곳곳에 타이레놀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권소완 수습기자

마스크 대란같은 상황일까 두려워 일선 접종 현장에서 여전히 ‘타이레놀’ 복용 권고 하기도 현장안내 개선, 품귀사태 막아야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 ◆장기 수급대책 세워야

현재 정부는 타이레놀 제조사인 한국안선이 보유한 비축물량 500만개를 확

보해 전국 약국에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15일과 16일에 걸쳐 240만개가 풀렸고 18일부터는 추가로 약 26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추가 공급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반면, 약사들은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장 모씨는 “수급 대란 조짐이 보일 때 서둘러 물량을 풀어야 했다”며 “뒤늦은 대책으로 타이레놀에 대한 갈

증만 높여 공적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상황이 올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약사 김 모씨는 “일선 접종현장에서는 여전히 접종 전과 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며 권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현장에서부터 사후 관리 안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품귀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타이레놀을 추가 공급하면서 되레 쏠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마포구 약사 임모씨는 “소비자들은 언제 또 타이레놀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타이레놀 쇼핑에 나섰다”며 “효과가 동일하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찾던 소비자들도 다시 타이레놀만 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접종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텐데 100개, 200개 단기 공급으로는 오히려 대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차라리 타이레놀의 수량을 충분히 확보해 장기 수급대책을 세우는 것이 쓸데 없는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권소완 수습기자 selee@metroseoul.co.kr

## bhc치킨, 가맹점과 의견교환·소통 나서

전국 지역별 가맹 간담회 진행

bhc치킨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지역별 가맹점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bhc치킨은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사동점에서 임금옥 bhc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본사의 경영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bhc치킨은 이달 초부터 대전충청지역 소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광주전라,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경영 성과와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의견 교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날도 본사와 가맹점은 올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객중시 경영과 운영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금옥 bhc치킨 대표는 “대의적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도 두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며 “소비자와의 접점인 현장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는 가맹점 사업주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임 대표는 “bhc치킨은 앞으로 가맹점과 함께 더 큰 성장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가맹점 사업주는 “뿌링클, 콤포시리즈 등 대표 메뉴 외에도 신메뉴인 하바네로 포테이 후라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항상 제품개발에 힘써 주시는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본사 경영방침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매출 상승에 효과를 보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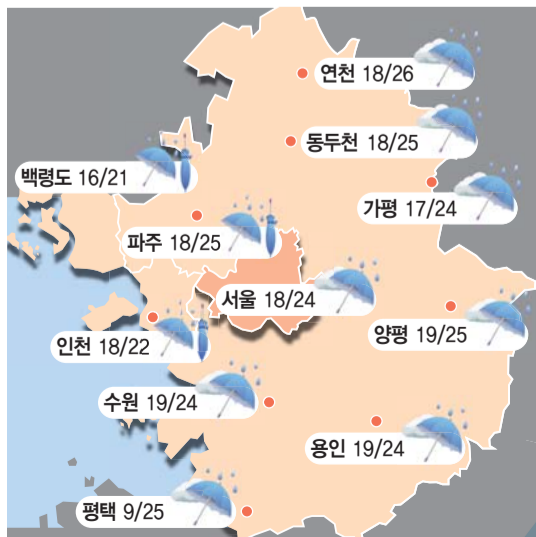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6

6월 18일 (금)  
음력 : 5월 9일

수도권 날씨  
18~2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휴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심사 착수

하반기 유럽시장 품목허가 앞뒤 향후 3년 이내 59개국 진출 목표

휴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접수하여 심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휴젤은 2015년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3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FDA에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자사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의 50유닛과 10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제출

한 바 있다. FDA 발송 공문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다.

약 2조원으로 추정되는 미국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0%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 내 자사 제품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필수 전진 기지로 꼽힌다.

휴젤은 지난 2018년 10월 오스트리아 소재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제약사 크로마와 함께 미국 현지 자회사 ‘휴젤 아

메리카’를 설립, 현지 시장 수요 확대 및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앞서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중국 수출명)’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휴젤은 향후 3년 이내 보툴리눔 독신 진출국을 28개국에서 59개국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보툴리눔 독신 수출국이 59개국으로 확대되면 휴젤은 약 5조 규모의 글로벌 독신 시장의 95%를 커버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 3세대 B형 간염 예방백신 임상1상 승인

차백신연구소, 2023년까지 임상시험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세대 B형 간염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임상1상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차백신연구소의 B형간염 백신 CVI-HBV-002는 2014년 5월 치료백신을 목적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아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1/2a상을 진행했다.

2019년 10월에는 임상 2b상을 승인 받아 현재 진행 중이다. 차백신연구소는 이 백신이 치료 목적 이외에도 예방백신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예방백신에 대하여 국내 임상 I

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

차백신연구소의 B형간염 백신은 3세대 항원인 L-HBsAg과 면역증강제 L-팜포(pampo)를 포함하고 있다. 3세대 항원은 2세대 항원보다 면역원성이 높아, 이를 포함한 3세대 백신은 2세대 백신보다 월등히 효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백신연구소가 독자개발한 면역증강제 L-팜포는 다사 면역증강제보다 면역반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도한다. 현재 상용화된 2세대 백신은 80% 이상의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나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무반응자’가 5~15% 보고되고 있다. CVI-HBV-002는 이런 무반응자군에서도 방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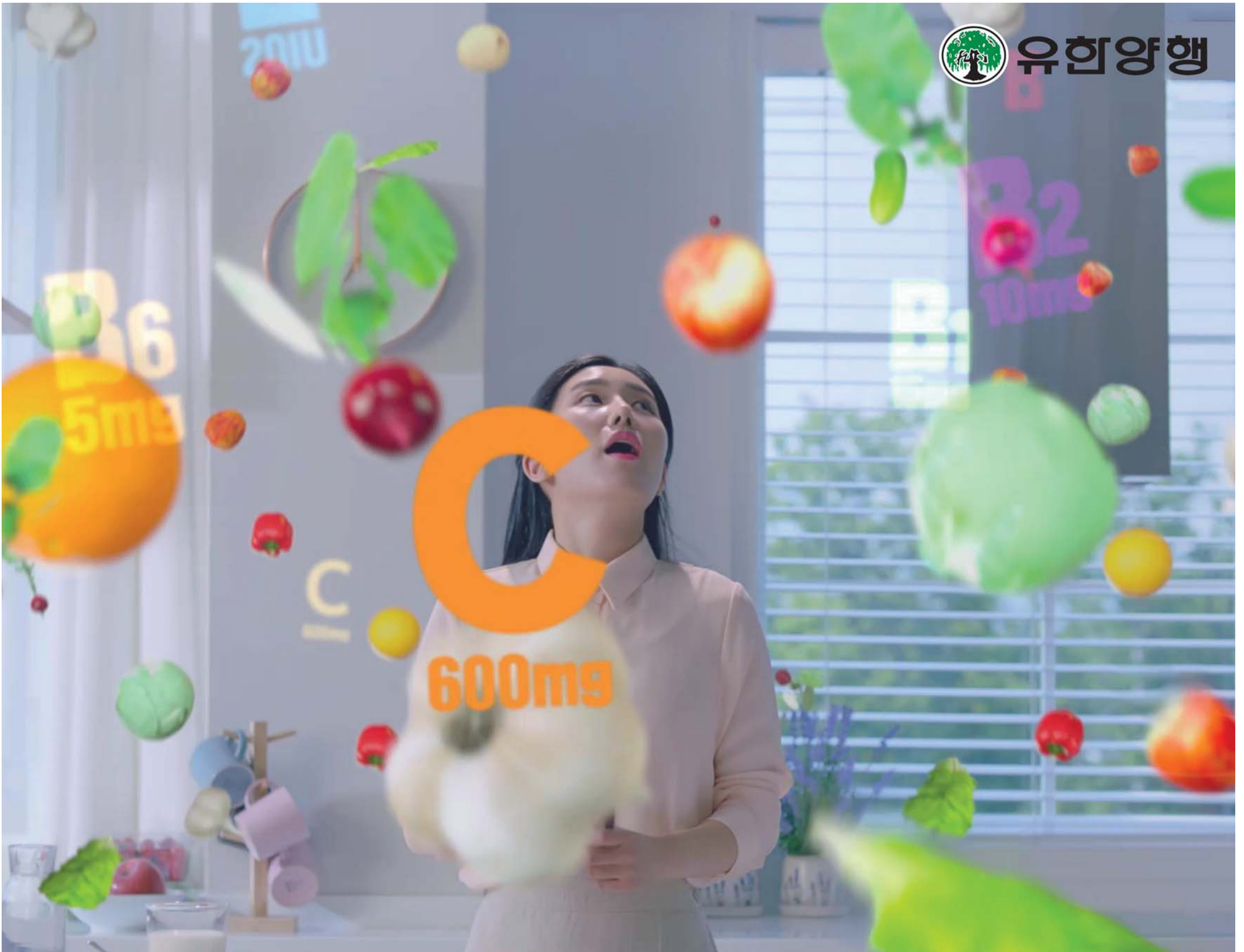
## 롯데리아 백신접종 고객 이벤트

롯데GRS 롯데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들을 대상으로 외식업계 최초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리아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약 350개 직·가맹점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매장 카운터에 제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메뉴 5종을 약 30% 할인 할인 판매한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는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 클래식치즈버거, 새우버거, 불고기버거, 데리버거 등 총 5종의 메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가족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베콤·씨로 채우세요!

한 끼의 완성  
베콤·씨®

비타민 B1 / B2 / B6

비타민 C

토코페롤

셀레늄

# 보르도 2020... 사상 최초 3년연속 그레이트 빈티지



한화생명-고객, 소아암 환우에 1002만원 후원금

한화생명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회에서 '2021 한화생명 VIP 멤버스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화생명은 VIP 고객과 함께 후원금 1002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이경성 한화생명 보험사업팀 상무(왼쪽 세번째)가 '2021 한화생명 VIP 멤버스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한화생명



예탁원, 부산시 북구 금곡초에 명상숲 조성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6일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금곡초등학교 내에 학교명상숲을 조성하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상숲 완공식에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이 한 학생과 포즈를 취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위니아전자, 한국전 참전 멕시코 용사 초청 감사회

위니아전자는 11일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멕시코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위해 위니아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위니아전자



동원F&B 리첼,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진행

동원F&B가 '리첼'에 실종아동 정보를 담고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원F&B는 이달부터 국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리첼' 묶음 제품 포장지에 실종아동을 찾는 광고를 인쇄해 운영한다. /동원F&B

## 광동제약 가산문화재단

### 제주서 '꿈드림 장학사업' 11개 초교 5000만원 지원

광동제약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가산문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제1회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은 제주지역 초등학교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산문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구 및 학습자료를 필요로 하는 11개 초등학교를 선발해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기초학력교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학생이 수업 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교구 구입을 위해 사용된다. /이세경 기자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역사상 처음으로 (2018년, 2019년에 이은) 3년 연속 '그레이트 빈티지'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씨클링의 평가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다. 뭐 하나 쉬운게 없던 해였다. 프랑스 보르도의 2020년 얘기다.

와인에서 빈티지(vintage)란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보르도는 매년 온화한 기후가 이어지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등과 달리 해마다 포도재배 품질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고, 와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빈티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는 물론 인력의 이동도 제한됐다. 포도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 특히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듯 작년 4, 5월은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 전역이 사실상 봉쇄 상태였다.

그렇다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가뭄이



유투이미지

이어졌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5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들은 알코올과 당분만 높은 포도를 수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에서도 확실히 불리했다. 보르도는 특유의 선물 거래 시스템인 앙프리미르(En Primeur)가 있다. 매년 4월이면 전세계 와인 전문가들이 보르도에 모여 와인을 시음해보고, 그 평가는 곧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번엔 팬데믹으로 보르도에 모이는 대신 전문가들이 있는 각국으로 와인이 보내졌다. 아직 숙성도, 안정화도 되지 않은 보르도의 와인들에게 긴 여행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다.

패턴으로 봐도 2020년 빈티지는 영 기대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 2020 빈티지 소개 영상.

/UGCB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평가받은 해는 '쌍끌이'였다. 2009, 2010년, 2015, 2016년, 2018, 2019년이 최고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2년 연속 좋은 해가 지나면 소위 '망빈(망한 빈티지)'이 나왔다. 그래서 2020년도 다들 쉬어가는 해라니 했는데 시음을 해보니 결과는 우려와 정 반대였다.

일부 보르도 와인너리의 경우 2018, 2019, 2020년 가운데 2020년을 사상 최고의 빈티지로 꼽는 곳도 나올 정도였다.

제임스 씨클링은 시음한 보르도 와인 가운데 10개에 사실상 만점인 99~100점을 줬다. 앙프리미르 시음을 시작한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와인에 만점을 준 경우다. 2020 빈티지의 기적은 이른바 가뭄

을 이겨내는 테루아의 힘이였다. 최상의 포도밭이 가진 점토나 석회암 토양은 상반기 내린 비의 수분을 가뭄 속에서도 그대고 잘 머금고 있었다.

유례없는 풍작에 와인애호가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앞으로 줄줄이 나올 그레이트 빈티지 가운데 어떤 빈티지를 와인셀러에 쟁여놓을 것인가.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모두 좋은 빈티지라면 이제 생산량의 문제다. 2020년은 포도 수확량이 많지 않았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2013, 2017년과 함께 가장 수확량이 적은 3개 빈티지 중 하나에 들 정도다. 같은 맛이라도 2020년 빈티지 와인인 좀 더 비싸질 수도 있겠다.

/smahn1@metroseoul.co.kr

## 한일시멘트, 삼성KPMG와 손잡고 ESG경영 속도

### MSCI ESG 데이터 활용 컨설팅 최적의 ESG경영체계 구축 기대

한일시멘트가 체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삼성KPMG와 손을 잡는다.

17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이번 손잡은 삼성 KPMG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MSCI ESG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경험은 국내 컨설팅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강점을 활용해 '한일 ESG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전경.

경영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ESG 경영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자문사의 특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회사에 최

적화된 ESG 경영체계의 효과적이고 안정적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지난 3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경영'을 선언하고, 'ESG경영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원칙과 방침, 실천과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영활동도 ESG 프레임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다.

지주사인 한일홀딩스와 시멘트 사업회사에 선적용 한 뒤 한일네트웍스, 한일산업 등 모든 사업회사로 ESG경영을 확대해 연말 경영성과 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슬의생' 제작팀, 자문해준 이화의료원에 기부금

### 시즌1 OST 수익금 일부 전달

tvN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팀이 시즌2 방영을 앞두고 시즌1 OST 수익금 일부를 이화의료원에 기부했다.

이화의료원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깊은 인연이 있다. 이대목동병원 흉근 간담체외과 교수는 배우 조정석 씨가 연기한 전문의 이익준의 역할을 자문했다. 흥 교수는 4년 전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며 역할과 병원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제공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팀으로부터 발전 기금 후원을 받은 이선영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흥근 이대목동병원 간담체외과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제 시즌 1 내용 중에는 흥 교수 의 실제 경험도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것이 3회에 담긴 어린이날 간이식 에피소드다. 뇌사관정을 받은 환자의 간이식을 5월 5일 집도하기로 했지만 환자의 어린 자녀가 매년 어린이날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할 것을 우려해 자정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간이식 집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 이대서울병원은 드라마 속 '울제병원'으로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촬영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는 17일 오후 9시 tvN에서 방영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송영광

◆달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승진 (14명) △(회계감사본부) 김병렬, 백승현, 허규만 △(세무자문본부) 고대권, 권혁기, 박준용, 이정연 △(재무자문본부) 강동남, 권봉경, 김경원, 오미란, 장호 △(리스크자문본부) 김수환, 유선희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승진(11명) △(회계감사본부) 김현규, 민세희, 연경홍 △(세무자문본부) 강이, 김태경 △(재무자문본부) 이정현, 정연희

## 부음

▲박정선씨 별세, 안용태(전 SK 와이번스 대표이사)씨 장모상=17일 오전 11시,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40분. 02-2262-4800

# 변화의 바람



박 승 덕 익  
냉정과 열정사이

#.네가 있는 곳에 도달하고/네가 없는 곳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기쁨이 없는 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네가 모르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무지의 길을 지나 가야 한다/네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무소유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너 자신이 아닌 것에 가닿기 위해서는/네가 아닌 길로 가야만 한다/네가 모르는 것이 네가 아는 유일한 것이고/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네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며/네가 있는 곳은 네가 없는 곳이다. (중략)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망은 /바로 기다림 속에 있다/모두 괜찮아질 것이고/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류시화의 책 '마음챙김의 시'에 나오는 T.S. 엘리엇의 '네 개의 사중주' 가운데 일부다. 달라져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다.

#.36세 야당 대표. 백팩을 메고 '따릉이'를 타고 출근 하는 낮은 모습. '이준석 바람'이 세간의 화제다. 설마설마했던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경제, 사회, 문화, 정보기술(IT)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10개국(G10) 위상에 걸맞다. 하지만 유독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 당쟁의 반복,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가 수 백 년 동안 이어졌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한다. 신선한 야당 대표가 등장한 배경이다. '꼰대'들도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2030세대, MZ세대들의 '공정'을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전쟁 같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30대 야당 대표의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이정표는 정해졌다. 변화다. 바뀌지 않으면 이제 표를 얻지 못한다.

#. 인간에겐 식탐과 욕심이 있다. 배가 부르는데도 앞에 있는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식탐이다. 배가 불러도 음식을 탐하는 동물이 사람이라고 한다. 깊은 골짜기(谷)에서 끝없이 흘러내려 오는 물을 자신의 작은 입을 벌려 다 마셔보겠다는 마음이 욕심(慾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 암호화폐가 금융투자 상품, 화

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엄연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가상화폐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20조원을 웃돌았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인정이자 변화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운 것이 핵심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제한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곳만 영업할 수 있다. 신고요건도 까다롭다. 먼저 이용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1금융권)과 연계해야 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불법 업체가 된다.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200곳이상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선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는 거래소가 10개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턱대고 뛰어 들었던 투자자는 긴장해야 한다. 식탐과 욕심을 버려야 자신과 자산을 지킬 수 있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 시청자 볼모로 잡는 콘텐츠 갈등



기지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콘텐츠 대가를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인터넷TV(IPTV)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LG유플러스의 OTT채널에서 CJ ENM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송출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사업자들은 '네티'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 ENM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비상식적인 금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CJ ENM은 '콘텐츠 제값 받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CJ측은 IPTV와 OTT를 별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CJ

ENM측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U+모바일 tv사용료는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KT '시즌'에서도 실시간 방송중단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KT 또한 현재 CJ ENM측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LG유플러스처럼 실시간 방송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입자 선정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만큼 KT와의 협상결과에 앞으로의 IPTV와 PP간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 같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상 시청환경이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콘텐츠업체들은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요금을 내야 하고 통신사들은 자사 OTT는 IPTV서

비스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도 초유의 '블랙아웃'으로 결국 U+모바일tv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개별 사업자간 협상으로만 산정하는 콘텐츠 가격의 불안정한 기준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정부도 CJ ENM 채널 공급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간 협상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OTT 규율법이 부재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 크게는 콘텐츠 가격체정 등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2의 블랙아웃' 사태를 막을 수 있다.

/silknii@

오늘의 운세 6월 18일 (음 5월 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이면도로에서는 서로가 양보를 해야. **48년생** 죽은 나무에 미련을 갖지 마라. **60년생** 재물로 인한 집착과 분별 심을 구분해야 발전. **72년생**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다. **84년생**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
- 37년생** 일어나 녹차 잎을 우려내서 마셔본다. **49년생** 일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61년생** 좋은 결과를 보려면 신중해야 올바른 선택이 될 것. **73년생** 쉽게 지치지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5년생** 소우주인 인간에게 하늘은 말이 없다.
- 38년생** 친구를 생각하니 반기운 전화가 온다. **50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2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니 적당히. **7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6년생** 생각을 바꾸면 앞에서 길이 보인다.
- 39년생** 금상첨화의 겹경사가 온다. **51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 **63년생** 귀신은 다 듣고 속으로 품는 생각까지 환히 보고 있다. **7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 **87년생** 망설임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40년생** 인생은 짧지만 시간은 영원하다. **52년생**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64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시기를 받을 수 있다. **76년생** 경험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88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 수가.
- 41년생** 눈비가 몰아쳐도 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53년생** 만사가 귀찮고 마음이 심드렁한 날. **65년생**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77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89년생** 기쁨이 해갈되듯 일이 풀려나니 열심히.
- 42년생** 청정한 바람으로 활 생기가 돋는 날. **54년생** 가정의 화목이 근본일 텐데. **66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78년생**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꽤 길다. **90년생** 음식물을 의지하지만 폭식 과식은 금물이다.
- 43년생** 새로운 희망을 책에서 얻다. **55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67년생** 뜻밖의 초대가 있었으나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현혹되지 마라. **79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9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외출하자.
- 44년생** 차가운 이미지를 벗어보자. **56년생** 지나간 일들로 곤란한 일이 생기니 서류를 챙겨라. **6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는다. **80년생** 피곤한 나 그녀에게 갈 길은 멀다. **92년생** 까마귀는 눈에 보이더라도 갈 수 없다.
- 45년생** 뒤늦게 부부사이가 바뀐다. **5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무겁다. **69년생** 명예도 실속도 챙기는 날. **81년생** 우물 속 개구리처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죽상이다. **93년생** 매력 있는 이성의 유혹이 있으니 고민.
- 4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서명은 중시 있게. **58년생** 외국여행은 지출이 많아져 후회 발생한다. **70년생** 밝은 꽃이 피었으나 내 마음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82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94년생** 어디를 가더라도 신뢰받는다.
- 4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미리 쇼핑을 하는 것도 한 방법. **59년생** 공들인 탐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71년생** 푸른 바다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83년생** 계획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95년생** 누군가의 성격이 팔자라는데.



## 김상회의四季 안전 위협하는 키보드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보는데 요즘 키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사고가 잦다는 것이다. 키보드는 2개나 3개의 바퀴가 달린 발판에 긴 손잡이가 있는 레포트 기구이다. 한쪽 발로 밀어서 올라타고 달리는데 속도가 제법 빠르다.

어디에서나 흔하게 보이는데 길을 걸어가다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뒤에서 갑자기 스치듯 썩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이고 앞에서 달려올 때는 어느 쪽으로 피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스럽다. 키보드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잦고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일이 많아서 운전자들이 피해 가기 어렵다. 고라니처럼 아무 곳에서나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 키큰다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셈이다.

작년 통계를 보면 키보드 교통사고가 무려 1,000건이 넘었다. 키보드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사람이 다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일까지 생긴다. 편하게 이용하려고 사용하는 도구인데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니 씁쓸한 일이다.

enje부턴가 공유 키보드가 늘어나면서 주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키보드를 사용한 뒤에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사람들이 바빠 다니는 인도 한복판은 물론이고 도로에 던져놓고 가버리기도 한다. 길거리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는 키보드는 길을 방해가 된다.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보기에 좋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키보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용하면 생활에 유용한 도구이다. 그런 도구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 신출판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를 자극하는 스토쿠 365 10,000원

정답

4	8	6	8	2	1	9	1
9	1	4	9	8	8	2	6
2	8	9	6	1	9	2	4
6	9	2	8	8	4	1	9
2	9	8	1	9	6	4	2
8	1	4	9	2	8	6	9
1	4	8	2	8	9	6	2
9	6	2	9	4	8	1	8
8	2	9	2	6	1	9	4

8	6	1	9	8	9	4	2
9	8	2	4	1	6	8	9
9	4	2	6	8	1	9	8
4	9	8	9	2	8	1	6
2	8	1	9	6	8	4	2
1	2	6	8	8	4	9	9
2	1	4	6	9	8	2	9
8	9	9	8	1	2	6	4
6	2	8	4	2	9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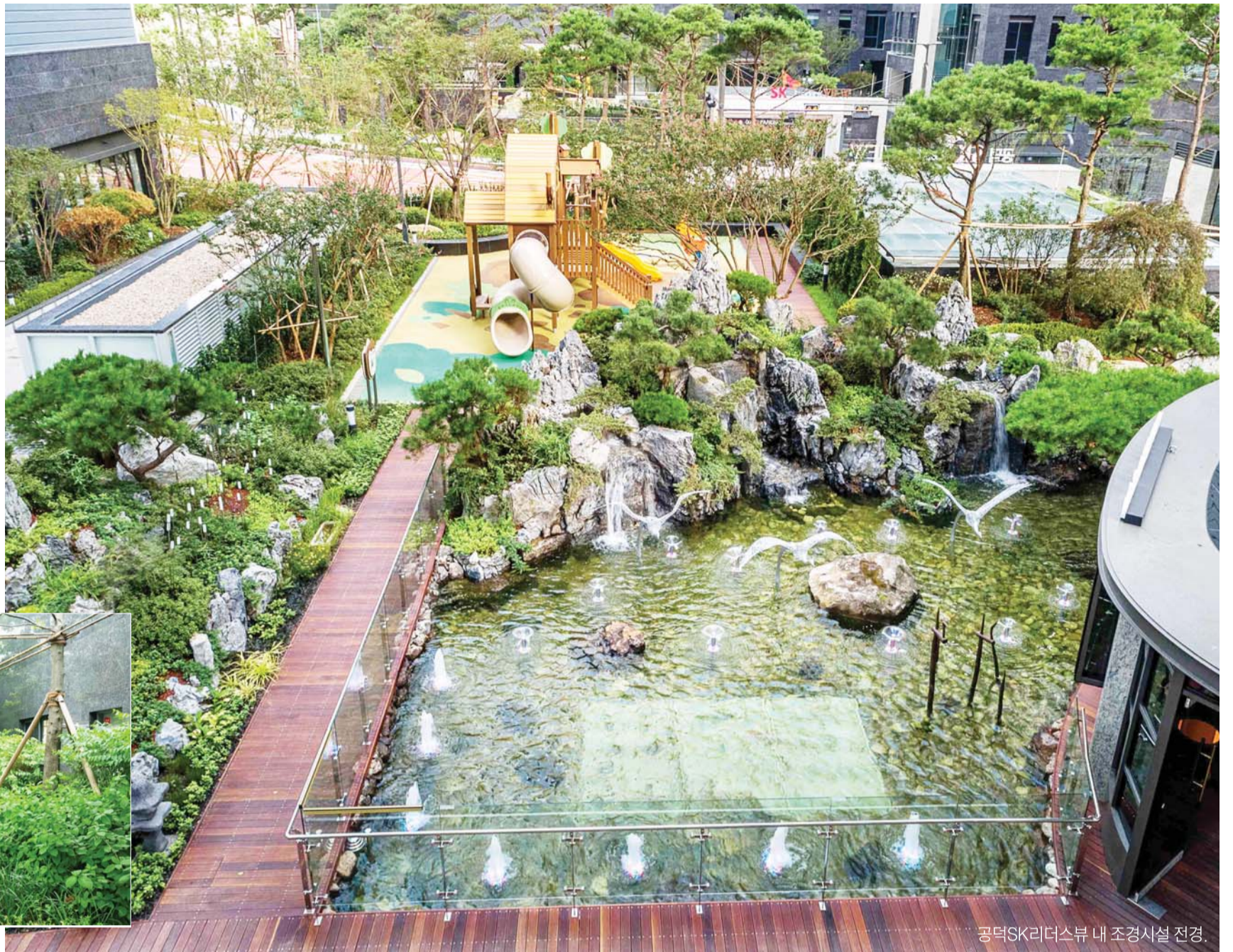
고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40026	2002년5월28일 제47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50111	2017년3월09일 제08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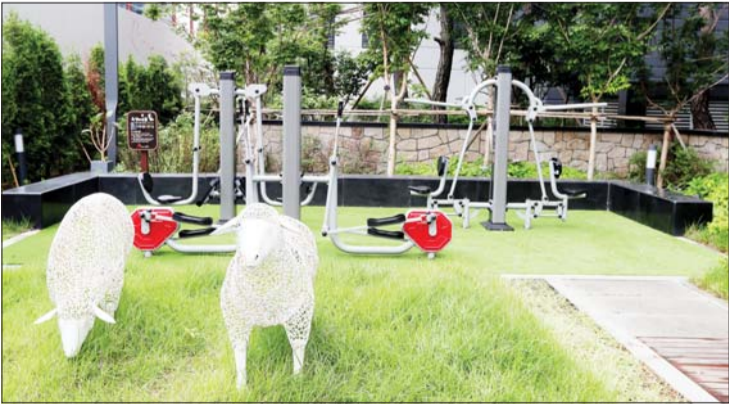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SK리더스뷰.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심 한복판에 입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생태공간이 있었다. 회색빛갈 도시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지 내 녹지공간은 주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였다.



공덕SK리더스뷰 내 조경시설 전경.



## 도심 한복판 산책로서 '초록심표', 연못서 '푸른심표'



### 아파트의 미학(美學)

#### <15> 공덕 SK리더스뷰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 돋보여 생태연못 중심으로 산책길과 정원 야외 커뮤니티 카페션 연못 한 눈에 단지 뒤편으로는 들꽃·나무 한 가득

#### ◆생태연못, 입주민 휴식공간으로 각광

지난 15일 SK건설이 시공한 공덕SK리더스뷰를 찾았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5·6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총 4개의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다 광화문, 여의도 중심업무지구와도 가까워 교통과 직주근접성에서 최고의 평을 받고 있다.

빌딩 숲을 뚫고 공덕SK리더스뷰 정문을 지나 단지 안을 살폈다.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다. 단지 중앙에는 생태연못과 야외 커뮤니티 시설인 '비오토피아 카페'가 자리했다. 이름은 도심 속 인공 생태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비오톱'이라는 단어에서 따왔다.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의 공간이다.

공덕SK리더스뷰는 이 생태연못을 중심으로 정원이 꾸며졌다. 정원 안에 마련된 산책길을 거닐었다. 연못 안에 장식된 물새 모양의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이밖에 잔디밭이나 정원에 동물 모양의 조형이 배치돼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뤘다.

비오토피아카페에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리며 단지 조경을 감상했다. 이상우 공덕SK리더스뷰 관리소장은 "규모가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게 이 아파트 조경의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상우 소장에 따르면 단지 내에는 산수유, 배롱나무, 산철쭉 등 20여가지 종류의 나무가 식재됐다.

#### ◆전 가구 공원조망권 위치

이 소장의 안내에 따라 단지 뒤편에 있는 생태공간인 '육생비오톱'으로 자리를 옮겼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와 야외 휴게시설이 제법 잘 꾸며진 모습이다. SK건설에 따르면 이 공간에는 곤충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 돌무더기, 장작더미를 만들고 들꽃과 나무를 심었다.

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을 재건축한 공덕 SK 리더스뷰는 지하 5층~지상 29층 5개동 472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총 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주택형은 전용 84㎡ 182가구, 97㎡ 47가구, 115㎡ 26가구로 구성됐다. 일부 고층세대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전용 115㎡ 모든 가구는 단지 내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염리초, 용강초, 동도중, 송문중, 서울여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경의선 숲길 공원과 이마트, 신촌연세병원, 마포아트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사진=SK건설, 손진영 기자 son@

야외커뮤니티시설 '비오토피아 카페'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광주시, '8인 사적모임' 오늘부터 전면 허용... 전국 처음  
▲ '나체감금 시신' 용의자들, 사망전 고소에 양심 품었다 /사진 뉴시스

▲ 윤석열 직격탄 박용진 "자기 생각조차 자기 입으로 못 밝혀"  
▲ '김원웅 母 유공자 사칭' 의혹에 보훈처 "관련 자료 확인 중"



▲ 이준석에 날 세운 정의당 "李 차별금지법 입장... 輿가 하던 말" /사진 뉴시스  
▲ 軍 취사장에 조리로봇·야채절단기·고압세척청소기 투입

# 하루 첫 말 감사·기쁨 표현... 베풀며 감사한 마음으로 유대인 일상 통해 배우는 현대사회 행복 지침



## 리더의 책장

전 비 호 前 멕시코·불가리아 대사



죽기 전에 한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랍비 조셉 텔루스킨 지음, 김무경 역, 북스넛, 28000원.

최근의 국제정세, 국제경제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떤 DNA를 갖고 있길래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늘 궁금했다.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이며 학자인 랍비 조셉 텔루스킨이 쓴 '유대인 가치의 책' (The Book of Jewish Values, 번역서 제목; 죽기 전에 한번은 유대인을 만나라)은 이러한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일 년 52주 365일간 유대인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침서이다. 오늘은 며칠 전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읽었던 이 책의 몇 구절을 떠올려 본다.

8일째: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라.

베풀면 내가 기분 좋고, 남이 기분 좋으니 나 자신 두 배로 기분이 좋아진다.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 스콧은 최근 약 3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500여 개 단체에 이미 7조를 기부했다고 한

다. 기회만 되면 베풀겠다는 그녀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법정 스님은 평소 '무소유'의 참된 진리를 설교하시면서 2010년 입적하시기 전 '내 것이 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써 달라'라고 하셨다.

베풀고 내려 놓을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해 질 수 있다.

213일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 유대인의 전통은 하루를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하루의 첫 말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랍

비 버크셔의 말처럼 나는 내가 숨 쉬는 공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나를 따뜻하게 해 주는 태양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256일째: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랍비 조셉 텔루스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진보주의자는 보수주의로자로 부터,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로 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설교했다. 다양함의 하모니!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남을 존중한다면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베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가 모두 동참해 보자.

-전비호 前 대사는 다음 글쓴이로 윤영선 前 관세청장을 추천했다.

### 유대인 사상, 현대사회 국제정세·국제경제 크게 영향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사회 동참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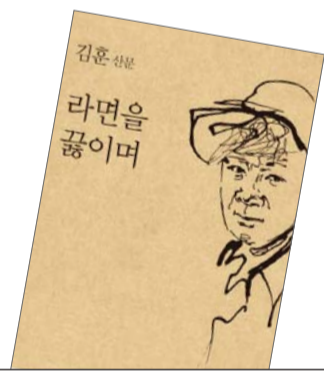


## 주말은 책과 함께

### 유행가처럼 편히 즐기는 산문

근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발견한 기현상(?)이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부르는 노래도 참 다양하다. 천년바위(진성),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영탁), 동백아가씨(이미지), 버터(방탄소년단), 롤린(브레이브걸스) 등 자주 들은 노래 중 제목을 아는 것만 적은 게 이정도다. 어떤 날은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 때도 있다. 필자는 멜로디와 후렴구 한 두줄 겨우 외는 수준이라 가사를 전부 암기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보였다.

기억력이 안 좋지만 누가 톱 치면 랩처럼 바로 내뱉을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다. 김훈이 쓴 '라파엘의 집'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술집 골목에는 밤마다 지식인, 예술가, 언론인들이 몰려들어 언어의 해방구를 이룬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논하며 비분강개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습버릇이다. (중략) 술 취한 지식인들은 이 '라파엘의 집' 골목을 비



#### 라면을 끓이며

김훈 지음/문학동네

틀거리며 지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 한 닢을 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백포함 609자의 짧은 글이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만년필로 필사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이상한 마력을 지녔다. 책에는 '라파엘의 집'을 포함해 총 53편의 산문이 실렸다. 가방에 넣어두고 틈날 때마다 읽어 보길 권한다.

412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ik1@

###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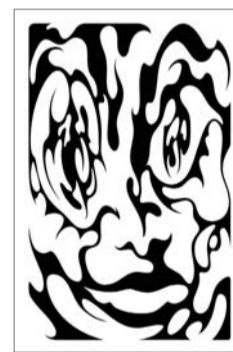
법은 국가나 민족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권·평등권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보루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은 돈과 권력 앞에선 자주 빌빌거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가난을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럼에도 법은 심판대에 선 적이 없다. 책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의 역사를 법정에 세운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어떤 논리가 정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는지, 힘 있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등 법의 이름으로 선언한 진실의 실체를 낱알이 까발린다.

292쪽, 1만4800원.

### 고어 자본주의

사야크 발렌시아 지음/최이슬기 옮김/워크룸프레스



책은 부를 생산하는 도구로써 자본주의와 공모한 폭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는지 살핀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신체를 파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내장을 전시하는, 살아 있는 '몸'을 대상으로 한,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이다. 그것이 어떻게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으로 변해 전 세계에 유통되고, 부를 생산하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됐는지 저자는 설명한다. 책은 몸의 훼손을 극화하는 고어적 행위가 이미 스크린을 뚫고 나와 인간을 옥죄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을 완전한 치사 상태에 빠뜨리는 스너프의 단계로 신속히 이행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120쪽, 1만9000원.

### 디지털 문해력

주니어미디어오늘 지음/인물과사상사



"어른들이 보는 뉴스는 '웍'하고 '노잼'이에요." 디지털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자녀를 둔 부모는 숙제를 한아름 안는다. 스마트폰은 언제쯤 사줘야 하는지,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줘도 될지, 자녀가 유튜브나 틱톡에 무방비하게 노출돼도 괜찮은지,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걱정거리가 한가득이다. 엄마, 아빠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기에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하다.

책에는 유튜브의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는 법, 슬기로운 인스타 생활 첫 걸음,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스마트폰 시간 관리법 등 디지털 세상을 현명하게 헤엄쳐 나갈 지혜가 담겼다.

200쪽, 1만5000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직원 임금체불' 싸이월드 전 대표...1심 벌금 800만원  
▲아웅산 수지 변호인단, 檢 증거 채택 반대...내달 26일 이전 결론 /사진 뉴시스



▲홍콩 경찰, 반중언론 핑귀르바오 급습...편집장 등 체포  
▲취재진에 '버럭'한 바이든...“좋은 기자는 비판적” 사과 /사진 뉴시스

▲청와대, “한일정상 회동 무산 아쉬워...日과 대화 협의 지속”  
▲유엔총장,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정전 협정 준수 재촉구



[경제종합]  
후반도체 품귀에  
자동차 업계  
국산화 시동  
03



Life

[라이프]  
“화장품 폐공병  
굿즈 만들고  
리필해 씁니다”  
니



# 압도적 웨이크에 조리퐁이 한가득 맛도 크기도 메가... 한 잔에 당 '충전' 배 '든든'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메가커피 '퐁 크러쉬'

'퐁 크러쉬'는 하루 평균 1000잔 씩 판매되는 가성비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메가커피(이하 메가커피)의 베스트셀러 시그니처 메뉴다. 바삭 바삭한 조리퐁이 한가득 올라간 압도적인 비주얼과 든든한 양을 자랑한다.

2015년 브랜드를 처음 선보인 메가커피는 6년만인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1386호점(24일 오픈 예정)을 운영하는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났다. 업계 불황 속에서도 가맹사업 4년 6개월 만에 1000호점 달성, 2년 연속 약 400개의 매장을 오픈하며, 연간 약 10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부진하던 지난해 전국 커피전문점 중에서 폐업률이 가장 낮았던 브랜드는 0.7%를 기록한 메가커피였다.

### ◆메가커피의 첫 번째 아는 맛의 위대함 시리즈, '퐁 크러쉬'

메가커피는 지난 2016년 9월 '아는 맛의 위대함'을 메뉴 개발의 모토로 삼아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추억의 국민 과자 조리퐁을 활용한 '퐁 크러쉬'를 선보였다.

추억의 국민 과자인 조리퐁과 다양한 웨이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소하면서도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퐁 크러쉬 시리즈'는 바삭바삭한 조리퐁이 한가득 올라 압도적인 비주얼과 든든한 양을 자랑한다.

퐁 크러쉬는 출시 5년만인 2021년 5월 기준 누적 판매 172만 잔을 돌파했다. 이는 출시일로부터 하루 평균 1000잔씩 꾸준히 판매된 셈이다. 퐁 크러쉬 총 판매량 172만 잔은 일렐로 쌓았을 때 무려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 약 558개, 에베레스트(8849m) 약 35개의 높이이며, 퐁 크러쉬 한 잔에 들어가는 조리퐁은 약 40g으로, 총 사용된 조리퐁을 무게로 계산하면 약 68.8톤, 조리퐁 일반 사이즈 기준(198g) 약 34만7000봉지가 사용되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메가커피의 퐁 크러쉬 시리즈가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다 보니, 타사에서도 조리퐁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출시되었다. 하지만 메가커피만의 좋은 원재료 맛과 최적의 품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기에 아직도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메가커피의 시그니처 메뉴로, 또한 원조 퐁 메뉴로서 그 위엄을 지켜가고 있다"고 전했다.

웨이크에 조리퐁 더한 '퐁 크러쉬' 172만잔 돌파  
재료 아끼지 않는 비주얼·저렴한 가격 인기 요인

### 집중교육

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엄격한 기준의 필기 및 실기 시험에 접수를 받지 못하면 매장 오픈이 지연된다.

메가커피는 가맹점이 고품질의 메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카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큰 비용으로 필수 진행하는 온라인 DB광고는 진행하지 않고, 가맹점에 들어가는 홍보물에 대해 비용을 100% 부담한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로 매장 취식이 불가했던 지난해 말, 가맹점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비용의 40%(최대 50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긴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가맹점의 피해 규모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지난해 3월 모든 가맹점에 지원금 100만 원과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추가로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경북지역 가맹점에는 원두 20kg을 무상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메가커피는 지난 2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으며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됐다. 이와 동시에 하형운 대표는 '상생 확산 및 산업 발전 기여'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철저한 교육·리모델링 지원...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  
주문 시스템 '메가오더' 도입, 안전성·편리함 높여

### ◆인증샷을 부르는 압도적인 비주얼

퐁 크러쉬를 비롯한 메가커피의 메뉴는 '메가(mega: 엄청나게 큰)'한 사이즈, 풍부한 재료와 낮은 가격이 특징이다. 메가커피는 '빅사이즈에 우수한 품질의 커피와 음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브랜드를 운영한다.

메가커피는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1500원이지만 프리미엄형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고급 머신을 비치했다. 모든 메뉴는 24oz 사이즈 이상으로 대용량이다.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로 24oz이며 에스프레소 2샷이 들어간다.

메가커피는 저렴한 가격에도 생과일 토핑을 얹고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베이커리와 디저트도 낮은 가격이지만 프리미엄형 카페와 같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또한 커피부터 다양한 종류의 티와 스무디까지 남녀 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메가커피는 메뉴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낮은 가격에 아끼지 않는 재료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다. MZ세대는 '아는 맛의 위대함'으로 조리퐁이 들어간 퐁크러쉬를 알리고 대한민국 민초단의 성지로 마니아층을 형성해갔다"고 설명했다.

### ◆전 지점에서 같은 맛의 퐁 크러쉬를 즐기다

메가커피는 전국 매장 어디서나 같은 음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가맹점 교육에도 신경을 쓴다. 메가커피는 매일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오픈하는 지금도 교육자 1명에 1개 가맹점이

###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즐기자

올해 1600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메가커피는 방문의 편리성, 키오스크, 모바일 메가오더 시스템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메가커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내 취식이 불편해지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문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메가오더'를 운영하고 있다. 메가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앤하우스는 사이렌오더가 생소하던 2014년, SK와 협업하여 오더 시스템을 도입, 언택트오더가 일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성공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메가커피에서는 2018년 오더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고 지난해 8월에는 '메가오더'를 기획개발해 운영 중이다. 특히 '메가오더'는 개시 3개월 동안 도입률이 평균 50%씩 증가했다. 소비자는 '메가오더' 서비스를 이용해 가까운 매장을 검색하고 원하는 음료 주문,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3번의 터치로 완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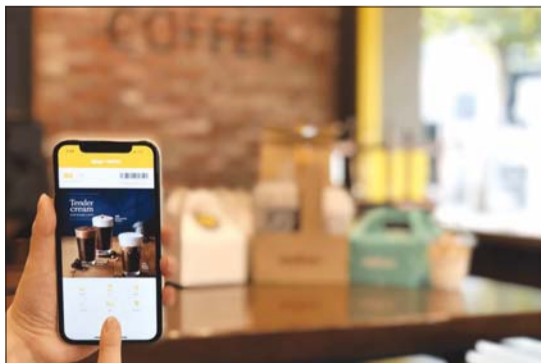
무엇보다 기다리지 않고 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 옵션과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 가능해 취향에 맞는 음료를 주문할 수 있고, 배달 서비스까지 연동되어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가커피는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맛있고 트렌디한 메뉴 출시를 위해 항상 노력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메가커피 시그니처 메뉴 '퐁 크러쉬 시리즈'



메가커피, '메가오더' 서비스

##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큐브' 전속계약해지 소송 승소  
▲ 부산 시민단체들 "KT농구단 이전, KT 모든 사업 부산서 아ют" /사진 뉴시스

▲ "올림픽보다 생명"...마라톤 개최日报社로서 중단 요청 잇따라  
▲ 박지성, 故유상철 조문 관련 악플러 경찰에 고소



▲ "손흥민, 토트넘과 2025년까지 재계약 임박" /사진 뉴시스  
▲ 김하성, 사흘 만에 선발 복귀...3타수 1안타